

碩士學位論文

濟州道 現代建築에서 나타나는 地域的 特性
事例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建設環境工學科

韓 盛 元

2006年

濟州道 現代建築에서 나타나는 地域的 特性 事例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朴 哲 民

韓 盛 元

이 論文을 工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7月 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韓盛元の 工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印

委 員 印

委 員 印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2006年 7月 日

목 차

Abstract

I. 서론

| | |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 3. 선행 연구 고찰 | 4 |

II. 전통민가를 통해 살펴본 지역적 특성과 현대건축

| | |
|---------------------------|----|
| 1. 지역성과 주거형태의 개념 | 7 |
| 2. 건축에서의 지역적 특성의 표현 | 8 |
| 3. 지역성의 반영으로서의 전통민가 | 10 |

III. 제주도 전통민가에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과 그 현대적 적용을 위한 특성 도출

| | |
|--------------------------------|----|
| 1.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 | 12 |
| 1) 자연환경 | 12 |
| 2) 인문사회 환경 | 13 |
| 2. 건축구성적 요소에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 | 16 |
| 1) 배치 유형 | 16 |
| 2) 내외부 공간구성 요소 | 18 |
| 3. 의장적 요소에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 | 28 |
| 1) 가구적 요소 | 28 |
| 2) 재료 | 30 |
| 3) 외부 경관 | 31 |
| 4. 제주도 전통 건축의 지역적 특성 도출 | 31 |

IV. 제주도 현대건축에 있어 지역적 특성의 적용 방향

| | |
|------------------------------------|----|
| 1. 전통민가에서 보이는 제주도 건축의 지역적 특성 | 33 |
| 2. 제주도 현대건축의 지역성 반영 사례 고찰 | 34 |
| 1) 1996~2005년의 제주도 현대건축 고찰 | |
| :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일반건축물 부분) | 35 |
| 2) 1996~2005년의 제주도 현대건축 고찰 | |
| :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주거건축 부분) | 44 |
| 3) 2000년대의 제주도 현대건축 | |
| : 현상설계 공모전 응모안 부분 | 54 |
| 3. 향후 제주도 현대건축에의 적용 | 66 |

V. 결론

| | |
|-------|----|
| | 77 |
|-------|----|

| | |
|------------|----|
| 참고문헌 | 80 |
|------------|----|



표 목 차

| | |
|---|----|
| Table 1. 선행 연구 고찰 | 5 |
| Table 2. 제주도 전통민가의 배치 유형 | 17 |
| Table 3. 제주도 전통민가의 외부공간 구성 요소 및 특징 | 21 |
| Table 4. 제주도 전통민가의 기본평면과 주공간 구조도 | 24 |
| Table 5. 제주도 전통민가의 내부공간 구성 요소 및 특징 | 27 |
| Table 6. 제주도 전통민가의 의장적 요소의 구성 및 특징 | 30 |
| Table 7. 제주도 전통 건축의 지역적 특성 | 32 |
| Table 8. 제주시 건축상 수상작품 목록 | 34 |
| Table 9. 1996년 제1회 제주시 건축상 수상작 | 35 |
| Table 10. 1998년 제3회 제주시 건축상 수상작 | 37 |
| Table 11. 2000년 제5회 제주시 건축상 수상작 | 38 |
| Table 12. 2002년 제7회 제주시 건축상 수상작 | 40 |
| Table 13. 2004년 제9회 제주시 건축상 수상작 | 41 |
| Table 14. 제주도 현대건축의 지역적 특성 반영 내용 | |
| - 제주시건축상 일반건축물 부분 | 43 |
| Table 15. 1997년 제2회 제주시 건축상 수상작 | 44 |
| Table 16. 1999년 제4회 제주시 건축상 수상작 | 46 |
| Table 17. 2001년 제6회 제주시 건축상 수상작 | 47 |
| Table 18. 2003년 제8회 제주시 건축상 수상작 | 50 |
| Table 19. 2005년 제10회 제주시 건축상 수상작 | 51 |
| Table 20. 제주도 현대건축의 지역적 특성 반영 내용 | |
| - 제주시건축상 주거건축 부분 | 53 |
| Table 21. 벤처종합 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상설계 응모안 | 55 |
| Table 22. 소암 현충화 기념관 신축공사 현상설계 안 | 57 |
| Table 23. 북제주군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현상설계 응모안 | 59 |
| Table 24.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예술관 현상설계 응모안 | 61 |

Table 25. 제주도 현대건축의 지역적 특성 반영 내용
 - 현상설계 공모전 응모안 63

Table 26. 제주도 현대건축의 지역적 특성 반영 내용 64

Table 27. 제주도 현대건축에 적용 가능한 지역성 및 발전 방향 70



그 립 목 차

| | |
|--|----|
| Fig. 1 조사대상 전통마을의 분포 | 3 |
| Fig. 2 연구 흐름도 | 6 |
| Fig. 3 제주도 전통민가의 외부 공간구성 | 19 |
| Fig. 4 유형화에 의한 제주 전통 주택의 공간구성의 예 | 25 |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houses of Je-ju Islands
and Its Application to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Terms of Ecology

Sung-Won, Han
Dept. of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Chul-Min, Park

It is believed very describe to study the vernacular house styles, and thereby provide base materials that might be applied on the architectural designing attempt of modern houses of today, as the former is generally built in such a simple form as to fulfil the primitive and fundamental human wants in a most direct and candid manner.

Besides, even for the only purpose of preserving our traditional heritage of culture, the vernacular housing from which has been cherished long by our forefathers is deserve to be intensively studied and tried to be followed as far as possible by the modern architecture.

The study has endeavored to research and appreciate the traditional architectural designs of the vernacular houses. The process of study is as follows. ;

First, graspting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 of Je-ju island and traditional housing in Je-ju island.

Second, Comparison of traditional houses in Je-ju island with in other places.

Third, understanding the unique factor of traditional housing in Je-ju island.

Fourth, study of case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Je-ju island.

The last of process, proposal of applicable design factors o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s.

In the conclusion, the main concept is both the creation of spatial layer and the openness and closure. In layout plan, courtyard, shelters and fence structures can be the factors of composition. Besides, the concept of design is as follows. ;

- the experience of rhythmical development of space
- the application of traditional 'Olae' space
- the application of various and vernacular materials
- the application of relatively high opening ration and variable opening
- the proper layout and design of stone fence

First of all, it is needed, various interpretation and approach for space. Then various and vernacular architectural languages will be accumulated.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통이란 일반적으로 한 집단이나 공동체 안에서 지난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문화적 맥락 즉 사상이나 관습, 행동양식을 말하는데, 이러한 전통을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점에 적용하면 과거와 현재를 이어줄 매개체가 될 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과거의 사회적 문화와 선조들의 정신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를 재조명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의의가 있을 수 있으며 과거를 통해 보다 나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침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다양한 디자인 방법 중에서 자신이 속한 지역과 사회의 독특한 과거 전통 양식들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어 왔고 그 중에서도 건축적 작업은 주변의 상황들 즉 인문·사회적인 요인, 자연환경 및 시대적인 변수들에 의해 각각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건축은 이미 디자인 어휘로써 과거 전통 건축의 요소들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리 나라 중에서도 지정학적으로, 인문사회적으로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에 있어서도 분명히 다른 지역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현대 건축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획일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근래 들어 지역성 및 향토성을 살린 건축적인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건물의 형상이나 배치 등의 부분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적인 기후조건과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한겨울에는 좀처럼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기온과 한여름에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낮은 온도를 유지하지만 바람이 많고 비가 많이 내리는 해양성 기후를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바람은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도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 요소이며 제주도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주도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지역성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요소(기후, 생산 기술

요인, 대지요인, 경제적 요인 등)들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사회 문화적 요인의 측면에서 지역성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사회 문화적 요인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며,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 요소로 간추리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요소에 관심을 두되, 그 중에서도 지역 전통 민가 건축 요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제주도 건축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특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현대 건축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찰해보려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을 제주도 전통민가와 제주도 현대건축에 적용된 지역적 요소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고찰하고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현대 건축에 유용하게 적용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제주도 건축의 특징 요소를 현대 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건축적 어휘로 제안하여 앞으로, 지역적 특성이 살아있는 제주도 건축을 계획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그러나 제안을 하되 그것의 어떠한 일반적인 유형화보다는 그 가능성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태도이다. 즉, 그러한 요소들이 현대의 건축에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들을 살펴 보자는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주도 주거형태에서 보이는 다양한 요소 중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제주의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현대적 적용을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먼저 이론 고찰을 통해 지역성과 주거형태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제주도 주거형태를 결정짓는 요소중에서 자연환경적 요인에 중점을 두되 특히 건축 구성적 요소와 의장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전통민가의 건축적 특성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현대의 제주도 지역 건축을 다각도로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민가를 평면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북부형과 일반형 중에서 일반적으로 겹집구조라 일컬어지는 북부형 민가의 특성을 제주

도 민가가 보여준다. 이러한 제주도 전통 민가의 특성을 그림 1과 같이 현장답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배치 및 내외부 공간구성적 특성을 건축 구성적 요소라는 측면으로, 재료사용 및 외부경관의 반영이라는 특성을 의장적 요소라는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하였다. 또한 건축 구성적 요소와 의장적 요소라는 두 개념은 향후 제주도 민가의 지역성 특성이 현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는 분석의 틀로 적용하였다.

또한 현대적 적용의 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으로는 대상선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6년부터 행하여진 제주시 건축상 수상작품과 2000년 이후 시행된 건축설계현상공모 작품중에서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즉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회의 제주시 건축상이 있는데, 격년제로 주거 건축과 일반건축 부분을 구분하여 수상하므로 제주시 건축상 중에서 주거건축 다섯 사례와 일반건축부분 다섯 사례에서 탐라상, 한라상, 이여도상 등 수상작품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건축설계현상공모 중에서의 선정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시군에서 각각 공공성이 강한 한 공모전씩을 선정하여 당선작과 우수작, 가작 및 참여작 등 사례별로 3개 작품씩 선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선정된 연구대상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관련 문서를 통한 문헌조사와 해당 건축사사무소를 방문조사하였고, 사례별 현장답사를 통하여 연구를 실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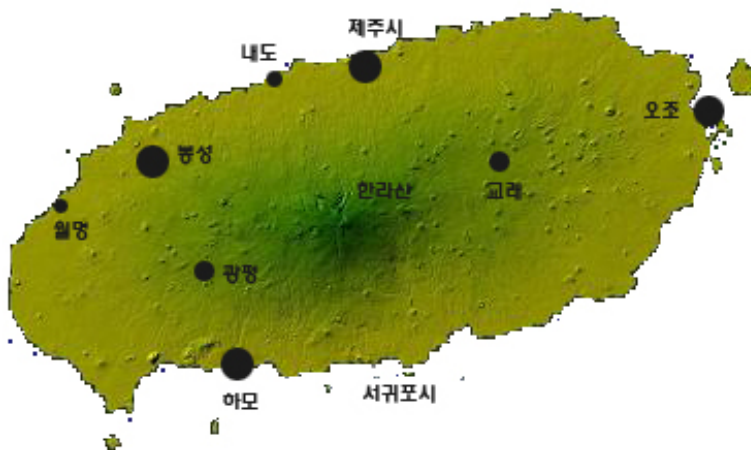


그림 1. 조사대상 전통마을의 분포

3. 선행 연구 고찰

지금까지 제주도 지역의 연구는 그 대상과 관점에 있어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동시에 여러 학문분야와 서로 관련이 되어 모든 사회과학, 인문과학 및 환경계획 분야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특히 제주도 건축연구는 건축학, 사회학, 역사학, 인류학, 지리학 등이 그 대표적 연구분야로서 서로 학문적 영역을 공유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도 전통주거 건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 전통건축 연구는 다양한 변화 속에 원형적인 것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건축물의 물리적 변화를 추적하여 특성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주로 민가연구나 지역의 건축적 특성 및 원형의 변형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추적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건축적 형태의 유형적 분류와 구성체계의 변화를 문화적, 지역적 조건을 기준으로 다루며 여기에 공간론적 연구가 가미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동안 이루어진 제주도 건축에 관한 연구는 전통민가의 평면형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제시한 김홍식¹⁾, 장보웅²⁾의 연구가 있고 한국민가를 북부형과 제주도형으로 분류하여 비교한 조성기³⁾의 연구 등이 있다. 또한 물리적 형태의 특징을 중심으로 평면형, 배치형, 입면의 구조 및 의장에 관한 연구가 있다.

입면의 구조 및 의장 연구로 김석윤⁴⁾은 제주도 반가의 입면 특성과 의장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신석하⁵⁾는 제주도 민가의 입면을 구조체의 특성과 비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의미적 연구로 정영철⁶⁾은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구조 특성을 민간신앙의 무속, 건축의례, 통과례로 해석하였다. 생활적 연구로 강행생⁷⁾은 안·밖거리형 주거의 공간구성과 사회조사를 통하여 부모, 자식세대의 생활관계를 밝히고 있으며, 김석윤⁸⁾은 19세기 제주도 반가의 변용을 성리학적 예법과 생산활동에 따른 특성으로 파악하였으며, 양택훈⁹⁾은 제주민가의 공간구성 및 생활의 관련성을 증·

1) 김홍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1992

2) 장보웅, 『한국의 민가연구』, 보선재, 1981

3) 조성기, 한국민가에 있어서 북부형과 제주도형의 비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권 112호, 1983.6.

4) 김석윤, 제주도 주택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5) 신석하, 제주도 민가의 구조부재 특성과 비례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6) 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7) 강행생, 제주도 안·밖거리형 살림집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8) 김석윤,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개축 측면에서 추적하여 파악하였다. 광희석¹⁰⁾은 제주도의 특성이 유지되고 있는 부모, 자식세대의 거주형태를 밝히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는 유형적 측면에서 제주도 주거의 형태를 분류하거나 주거 특성을 분석한 것과 물리적 조건에 대응하는 생활적 측면에서 거주자의 특성을 파악한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연구는 전통 건축의 다양한 특성을 현상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들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그 특성들이 오늘날 뜻하는 의미나 현대적 적용에 관한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흐름은 그림 2와 같이 전개하였다.

표 1. 선행 연구 고찰

| 연구자 | 연구제목 | 연구내용 | 연구방법 | 계재 | 년도 |
|-----|------------------------------------|--|------------|------|------|
| 광희석 | 분가 촌락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세대간의 거주형태에 관한 연구 | 성읍민속마을내 주거에서 나타나는 세대간의 공간사용 방법 연구 | 현장조사 | 건축학회 | 2001 |
| 김석운 |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을 성리학적 예법과 생활활동에 따른 특성으로 파악 | 문헌조사, 실측조사 | 명지대 | 1996 |
| 양택훈 |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 제주민가를 근대화의 관점에서 증개축을 통해 변화과정을 파악 | 현장조사, 실측조사 | 한양대 | 1992 |
| 정영철 |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 제주도 민간신앙을 통해 전통민가 공간 구조의 상징적 의미를 규명 | 문헌조사 | 한양대 | 1991 |
| 신석하 | 제주도 민가의 구조부재 특성과 비례에 관한 연구 | 제주도 민가의 입면의 구조재의 특성과 비례 분석 | 실측조사 | 명지대 | 1987 |
| 김석운 | 제주도 주택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제주도 후기 조선시대의 반가의 토속 건축의 장소성을 파악 | 실측조사 | 국민대 | 1986 |
| 강행생 | 제주도 안·밖거리형 살림집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전통 주거형으로서 안·밖거리형 살림집의 공간구조를 파악 | 실측조사, 빈도조사 | 건국대 | 1985 |
| 조성기 | 한국민가에 있어서 북부형과 제주도형의 비교 | 한국민가와 제주도형의 평면형, 배치형을 분류하여 비교 | 문헌조사 | 건축학회 | 1983 |

9)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10) 광희석, 분가 촌락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세대간의 거주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7권 1호(통권 147호), 200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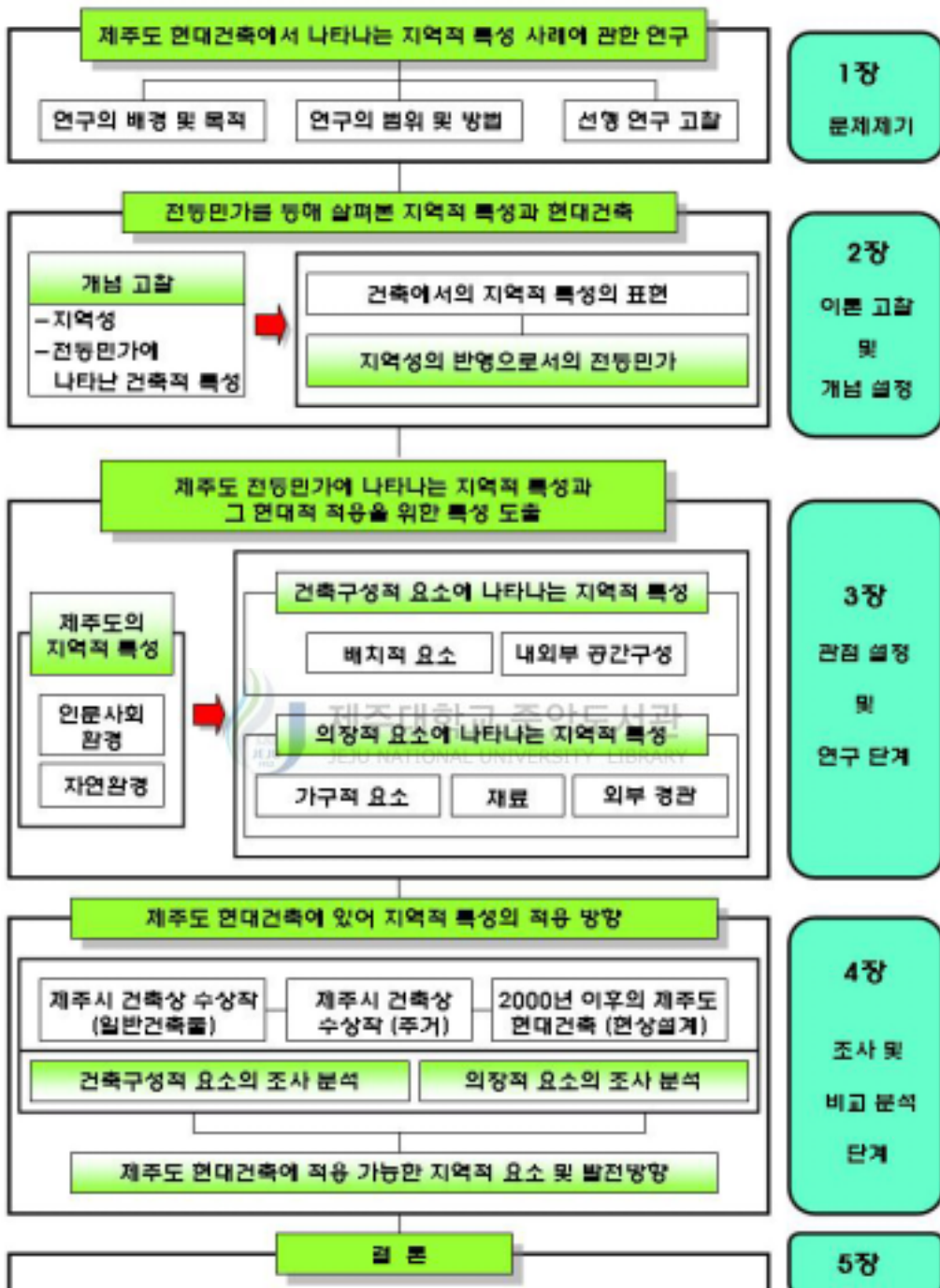


그림 2. 연구흐름도

Ⅱ. 전통민가를 통해 살펴본 지역적 특성과 현대건축

1. 지역성과 주거형태의 개념

1) 지역성

지역성의 개념은 우선 사전적 의미로서 ‘특정한 지점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지역적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특정장소 혹은 주변환경의 특징을 말하며 ‘장소를 가진다’는 또는 ‘공간에서 위치를 가진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한다. 즉, 사물의 상태나 위치 그리고 존재를 의미하며 장소 혹은 공간의 특정부분에 존재한다는 상태나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¹¹⁾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성의 개념은 주변 환경이라는 물리적 요인과 무척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지역의 분류는 산맥이라 구릉, 하천 등과 같은 자연환경의 특수성에 의하여 구분되는 자연적 지역과 정치·행정적 영역이나 역사적 영역, 동일한 방언이나 민속 등으로 구분되는 인문적 지역으로 대별된다.¹²⁾ 그리고 이러한 상이한 지역 내에 나타나는 자연적 환경의 차이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지역적 유기체로서의 성격은 지역마다 특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지역의 종합적인 개성을 지역성이라고 한다.¹³⁾ 이것은 그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한계 짓고, 그 지역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주거형태

각 지역마다 다양하고 독특한 지역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건축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풍토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지역의 자연환경적인 요인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요인 역시 주거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건축은 그러한 환경에 끊임없이 대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유사한 자연환경조

11) 이동수, 한국 현대건축에 있어서 지역성 표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11

12) 이상정, 한국 남부해안지역의 지역성에 적응하는 주거건축의 적정계획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p.8

13) 이상정, 앞의 책, p.9

건을 갖는 지역이라도 인문사회적 환경의 규범이 다를 때, 혹은 인문사회적 규범이 같은 환경에서도 기후적 요소와 같은 자연환경의 차이가 있을 때 서로 다른 주거 형태가 생겨나게 된다. 즉 각 지역은 그 지역마다 다른 환경과 여건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주거형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각기 다른 자연적,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생겨나는 지역성은 주거 형태에도 영향을 미쳐 그 지역 특유의 삶의 방식, 가치관과 더불어 풍토건축도 함께 만들어낸다. 따라서 풍토건축의 주거형태에 내재되어 있는 공간의 구성, 개념, 특성, 다른 계획요소들은 지역성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성에 반영된 풍토성은 곧 그 지역의 친환경적 측면과도 결부된다고 볼 수 있다.

2. 건축에서의 지역적 특성의 표현

1) 자연환경의 수용과 조화

건축을 규정하는 자연적 요소는 풍토적 특성으로, 기후, 지형, 지질, 건축용 재료로서의 산물을 들 수 있으며, 인간이 자연에 적응해야 되는 한정된 환경의 제약조건과 미숙한 기술의 조건하에서 이들 요소는 건축형태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수한 지역적 미기후에 적합한 대지선정과 풍토적 재료의 선택 및 이러한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적응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모형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즉 풍토건축은 기후의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기계적 설비가 활용되지 않았으므로 인간이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안락한 은신처로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창조되어져야 하며, 한정된 재료와 기술에 의해 성공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건축환경의 조절방법은 건축적인 해결방안으로 지역성이 표현된 고유한 건축형태의 문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에 의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한 것이다.

본 연구도 이러한 자연환경적 요인과 주거형태의 관계속에서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고 형성되어진 제주도의 지역성에 주목하여, 이를 규명하고 앞으로의 건축에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하기로 한다.

2) 역사와 전통의 수용

건축에서 ‘역사’라는 말이 내포하는 의미는 거주자와 세계와의 관계에서 시간요소를 말한다. 과거에 대한 연구는 사물의 복합성과 중복성을 인식하는 데에 효과적이며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속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 중 어떤 것과도 단절되어 살아갈 수 없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고유 전통은 하나의 문화와 요구, 가치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다양한 정서와 가치 등이 직접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물리적인 형태로 전환된 것이다. 건축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의 공식화로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상충되는 충동을 따른다. 즉, 건축도 인간과 그 역사의 복잡다단함이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건축은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습득된 지식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

3) 문화적 배경의 도입

문화란 매우 많은 의미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이상, 제도, 관습 등의 총체적 질서이며 이러한 질서 즉 특정문화가 지니고 있는 상징체계와 행동에 따른 결과의 일치를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지역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화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¹⁴⁾

주거환경은 사회 지리적인 배경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주택과 주거생활에는 거주자의 관습, 계층 모든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듯 주거의 총체적인 모습은 거주자가 소속되어 있는 문화를 반영한다. 보듀(Bourdieu)는 주거환경 내에서의 거주자의 문화적 성향을 정의하면서 주거공간은 그 속에서 생활하는 거주자에 소속된 공간으로, 과거의 주거경험에 의해서 생긴 성향이나 관습이 체계화된 것이라고 하였다.¹⁵⁾

이러한 사회문화 중에서도 종교는 주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주택의 형태뿐만 아니라 평면, 공간배치, 좌향 등에 영향을 준다. 또한 경제적 요소의 중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여러 가지의 조건하에서도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주택의 형태

14) 허정아, 현대건축의 지역성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20

15) 김경희 외 3인(공역), 주거와 환경, 문운당, 1996, p.98

와 규모, 성격이 달라짐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지배적인 요소를 들자면 거주자 자신의 가치관과 생활이라고 하겠다. 그 사람의 거주환경은 종교적 신념, 가족의 구성, 사회조직, 생업, 개인의 사회적 관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다. 즉, 주거는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 사회문화적 요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대응적인 개념으로서의 물리적 요소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주거라는 것은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단순히 어느 한 가지 요소만을 가지고 통찰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4) 물리적 맥락에 적용

현대건축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테마 중, 맥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맥락적 디자인의 접근 방법은 특정 지역의 재료와 시각적 구성요소들을 반영한 디자인 형상의 시각적 속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지역적이고 토속적인 건축의 구조와 형태질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 등으로 볼 수 있다.¹⁶⁾ 시각적인 것을 강조하는 ‘맥락적 건축’은 건축양식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신축건물과 구 건물과의 조화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계방식은 건축가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어떤 경계가 한정되어 지역이 형성될 때, 자연적인 영역과 인간의 행위와 활동을 표현하기 위해 형성하는 영역이 구별될 수 있다. 맥락적으로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연계방식을 건축적인 어휘로 실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정 지역의 환경에 직접 관련된 시각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각적 단서는 직접 연결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얻어진다.¹⁷⁾

3. 지역성의 반영으로서의 전통민가

이상에서 살펴보았을 때, 현재 상황에서 위의 포괄적인 지역성의 개념과 주거형

16) 허정아, 앞의 책, p.22

17) 허정아, 앞의 책, p.23

태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전통민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건축적 대안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특히 어떤 지역보다도 자연적 요소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의 지역적 특징은 전통민가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따라서 제주도만의 고유한 지역성을 규명하고 그를 건축적인 어휘로 나타내는 데에 전통민가에 대한 고찰은 유용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비교적 활발이 이루어진 제주도 전통민가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고찰을 하고 다른 지역 전통 민가와와의 비교를 통해서 제주도만의 건축적 특징과 지역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현재에 지역성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건축에 유용한 지역성을 살린 설계요소들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Ⅲ. 제주도 전통민가에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과 그 현대적 적용을 위한 특성 도출

1.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

제주도 주택건축문화에 영향을 준 환경인자로서 제주도 특유의 지리적 조건이나 기후 등의 물리적 요인과 지역적인 풍습, 민간신앙, 가족제도 등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자연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제주도 전통민가의 건축적 특징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그것의 현대적 적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연환경

(1) 지형 및 지세

타원형으로 된 제주도는 중앙부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300여 개나 되는 기생 화산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섬의 중핵이 되고 있는 한라산은 사면이 완만한 경사로 내려와 해안에 이르고, 등고선은 산봉을 중심으로 거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경사는 남부가 북부에 비해 비교적 급한 편이어서, 이로 인해 해안선도 남부는 단애를 이룬 곳이 현저하며 평야는 동서 양단에 넓게 퍼져 있다.

토양은 화산회토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화산회토는 화산 분출물인 화산회, 화산사, 또는 화산암을 모체로 생성된 토양이다. 유기물 집적량의 차이에서 암갈색토, 농암갈색토, 흑색토, 적황색토의 네 개의 토양으로 분류된다.

지표면은 투수성이 강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은 곧 지하로 빠져 해안선 가까이 가서 용출한다. 따라서 취락이 해안선 가까이 밀집하기 마련이다.

(2) 기후

제주도의 기후는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따뜻한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지만, 한라산의 영향으로 일기변화가 심하다. 연평균 기온은 14.7℃, 서귀포 15.5℃로 서귀포가 다소 높다. 연평균 습도는 제주시 73%, 서귀포 72%로 거의 비슷하지만,

4~9월의 연평균 습도는 서귀포 80%, 제주시 77%로 서귀포가 높다.

연평균 강수량은 제주시 1,440mm로서 한반도 남부와 비슷하며 서귀포는 1,676mm로서 국내 최대 강우지역중의 하나이다.

연평균 풍속은 제주시 4.7m/s, 서귀포시 3.8m/s로 제주시가 높다. 그리고 8, 9월경 한두번 휩쓸고 지나가는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이나 건축물에 피해가 많으며 최대 풍속은 제주시 36.1m/s(NNE), 서귀포시 26.7m/s(SSW)이다. 풍속 10m/s 이상의 폭풍일수가 연중 114일이나 된다. 제주시의 겨울의 계절풍은 북서풍이 불고 여름은 남동풍이 불며, 서귀포시 겨울의 계절풍은 북동풍이 불고, 여름은 남서풍이 분다. 이처럼 해양성의 기후가 뚜렷한 제주도의 기후는 바람이 그 특성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1990년을 기준으로 제주도의 월평균 일조시간은 162.7시간이고 서귀포는 181.3시간이다.

2) 인문사회 환경

(1) 풍습

제주문화의 특성을 형성하는 근본 요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고찰되고 설명되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언어, 민속 분야와 가족과 친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 경제적 측면과 인류학적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조선중기 이후 보편화된 한국의 전통가족은 가계계승과 부계친족 집단의 결속을 중시하기 때문에 장남은 반드시 부모와 동거함으로써 가족의 창설과 확대, 축소, 해체의 과정이 분명하지 않고, 장남에서 장남으로 이어지는 직계가족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제주도의 가족은 이러한 한국의 전통가족과 비교했을 때 매우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장남이 결혼 후 부모 가족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이다. 철저한 분가주의를 보여주는 이러한 제주도의 가족형은 전통적인 직계가족이 아니라, 부부가족이며, 자식이 결혼하여 분가할 때는 주거를 분리하여 독립된 가옥을 새로 마련하지 만 가옥을 새로 마련할 형편이 못되거나,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없는 홀어머니만 있는 경우에는 부모 가족과 자식 가족이 한 울타리 안에서 분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대개 ‘안거리’와 ‘밖거리’로 주거를 분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일상 생활들도 각기 독립적으로 영위해 나간다. 19세기 말에 이미 장남분가가 널리

행해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주도의 장남분가 전통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랜 것으로 짐작된다.¹⁸⁾ 그리고 이러한 장남분가의 풍습은 재산상속, 제사상속, 가족관계, 부부관계, 가족의식 등 가족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제주도 특유의 가족제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남분가의 전통 외에도 제주도의 핵가족적 성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재산 상속의 균분 경향, 문중조직의 미발달, 육지와 상이한 혼인 의례, 부락내혼의 경향, 높은 이혼률과 재혼율, 사혼(死婚)의 관습, 조상제사의 분할 등이 그것이다. 이는 가계 계승과 부계 친족 집단의 조직화를 바탕으로 직계 가족을 지향하는 전통적인 한국가족과 매우 상이한 모습들이다.¹⁹⁾

이처럼 제주도의 가족제도가 육지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유교적 양반 문화의 회박, 머슴의 부재(不在) 등을 들 수 있겠다.²⁰⁾

(2) 민간신앙

민간신앙이란 민간층의 생활 공동체 안에서 자생하여 전승되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현상이다. 이는 자연이든 혈연이든 간에 한 지역사회 민중들에 의해 채용된 주술·종교적 신앙체계이며, 그 주류는 자연·종교로서의 무속신앙이다. 그리고 민간신앙은 공동체의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서민층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역적 범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 공동체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는 절해고도, 척박한 토양, 다풍·다우의 가혹한 기후 조건 속에서 고된 자연과의 싸움을 치를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초월자에 지향하는 무속적 생활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제주도의 민간신앙은 오랜 전통 속에 종교라기보다는 생활양식의 일부로 흡수되어 문화의 저변을 형성해온 지배적 사상이다. 이는 제주 문화의 심층에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치체계와 세계관을 지배하면서 현재까지도 거의 원형 그대로 존재하여 제주인의 생활 속에 기능하고 있다.

제주의 마을은 대부분이 반농·반어의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마을사람들은 대

18) 제주의 민속 V, 제주도, 1998, pp.554-557

19) 박은영,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11 재인용

20) 박은영, 앞의 책, p.11 재인용

부분 농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계(契)나 접(接)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가정의 무사, 안녕과 생산의 풍요를 기원하는 무속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마을은 생산·노동의 공동체로서 지연·혈연을 묶는 곳 공동체이다.

제주도의 무속신앙은 큰 곳을 통하여 종합되는데, 탐라는 본토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라는 탐라인의 세계관, 우주관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본토에는 창조신화가 전승되지 않지만, 제주에는 곳을 할 때 천지창조 신화가 불려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주 문화의 독자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도 무속신화인 <본풀이> 속에는 제주인의 상상력과 문화, 제주 사회의 내재적인 규율과 법칙, 가치체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신화를 향유하는 신앙민 집단의 미의식이 발현되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든 삼분체계 형식의 화법을 빌어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많다. 이러한 삼분체계는 정반합의 변증법, 삼단논법 등과는 다른 화법이며 논리 체계인 동시에 신화의 문법이다. 이 또한 제주문화의 독자성이라 할 수 있다.

(3) 유교사상

조선시대의 주거건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유교사상이라고 설명되고 있으나 제주의 유교는 세종대(1418년)에 삼년거상과 수분제를 실시하여 주자가례에 의한 의례규범의 전승으로 충효정신의 사회관습이 발전되는 결정적 기점이 되어온 이래 가부장적 대가족 제도, 조상숭배, 철저한 신분제도와 남녀의 내외법 등 남성위주의 내용구성은 도서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상과 현실이라는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의리와 절개를 강조하는 선비정신인 유교의 이상은 남성들에 의하여 집전되는 각종 가례와 농포제의 형식과 함께 사회적으로 공인되며, 상징적으로 내면세계에 존재하지만 현실적 유형분야인 가족제도는 제주 특유의 형식이 나타나 있고 엄격한 신분제도에 따른 노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장남, 혹은 ‘도사리’라는 명칭의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형식이 있었을 뿐이고 남녀의 내외법도는 희박하여 가사나 가례에 여자의 역할이 확대, 적극화 되어 있다. 따라서 주거내 여자의 위치는 하위일 수는 있어도 영역은 가내 외에 훨씬 크게 점유되어 있다.²¹⁾

21) 김석윤, 제주도 주택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p.14

이로써 조선조 개국 이래로 유교를 장려했던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교사상은 이상으로 존재하며 실제로 제례나 혼·상례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제주형이 되어 있으며, 육지의 유교사상과 비교해 볼 때 의식에 따라 강약으로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의 규범과 예절로 풍속화 되었다.

친족은 물론이고 이웃이나 동네사람 중의 관혼상제(冠婚喪祭)시는 모든 고향사람들이 참여하여 위문과 경축을 주고받으며 협조하고 연말연시는 마을의 웃어른을 방문하고 세배한다.

따라서 남녀의 격리의식, 가부장제의 가족주의적 상·하관계 등은 육지의 유교의식에 비교하여 약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건축구성적 요소에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

1) 배치 유형

(1) 배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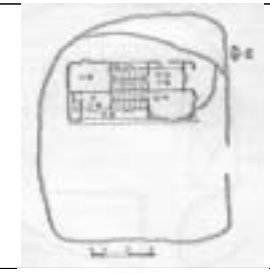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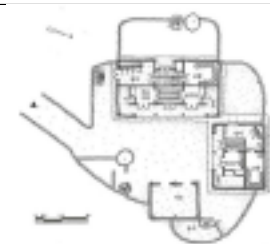



제주도 전통주거가 본토의 전통주거와 가장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점은 마당을 중심으로 한 구심적 배치와 철저한 별동배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속적 사고와 풍수지리의 영향, 기후적 요구, 가족제도의 특이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제주도 특유의 가족제도로 인한 안·밖거리의 분리 거주와 바람이 많은 기후적 특성으로 인한 화재 위험에 대한 대비가 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²²⁾ 그리고 이 외에도 바람이 많고 강한 기후의 제약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기도 하며 ‘마당 공간’이 농어물의 건조장과 작업장으로 이용되는 외에 여름철의 서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풍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분동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도 한다.²³⁾

가옥의 좌향은 지형, 풍향, 일사량 등의 자연적 조건 외에 방위에 대한 길흉관습

22) 박은영, 앞의 책, p.13

23) 김석윤,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36

표 2. 제주도 전통민가의 배치 유형

| 구분 | 도면 | 공간 구성 | 특징 |
|------|--|---|--|
| 한거리집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담 울타리 안에 건물 하나(안거리)로 구성 -올래는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짧음 -안뒤, 우영 등의 예비공간 없음 |
| 두거리집 | <p>마주앉은 두거리집</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거리와 밖거리를 마당을 중심으로 일렬로 배치 -밖거리를 이문간으로 사용하기도 함 -북부의 농촌에 많이 분포 -이문간이 없을 때 긴 올래 |
| | <p>모로앉은 두거리집</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거리와 밖거리를 마당을 중심으로 ㄱ자로 배치 -안거리가 작은 방이 없는 삼간집일 때의 평면형태 -어린애나 노모가 있는 남부 농촌에 많이 분포 |
| 세거리집 | <p>마주앉은 세거리집</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밖거리형에 모거리가 추가된 ㄷ자형 배치 -모거리는 정지거리 혹은 테들막으로 사용 -대가족을 이루면서도 각각 가계를 달리하는 제주도 특유의 주택형식 |
| | <p>모로앉은 세거리집</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ㄷ자형 배치에 안거리 맞은편에 테들막을 설치 -밖거리의 정지간을 정지로 이용(두거리집과 차이점) -남부의 농촌에 많으며, 두 세대가 한 집에 사는 유형 |
| 네거리집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밖거리에 ㄱ자형 배치를 이루도록 테들막과 수레간 설치 -제주시, 대정, 성읍 등의 귀족형 주택 -자유스러운 배치형 보임 |

이 결정요인이 된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풍수지리설에 의한 배산임수의 입지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중앙에 한라산이 솟아 있는 지형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섬의 북서쪽에서는 겨울에 북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

(2) 제주도 민가의 배치유형

제주도 민가는 모두 ‘一자형’으로 육지의 남부지방과 비슷한 면이 보이지만 간살이 아주 다른 양통집으로 오히려 북부지방이나 일본과 유사한 점이 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一자형인 집은 건물의 동수(棟數)에 따라 외거리집, 두거리집, 세거리집, 네거리집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외거리집은 다시 막살이집(二間집), 삼간(三間), 옷삼·알四間집으로 나뉘고 두거리집, 세거리집은 가옥의 배치형태에 따라 모로앉은 형과 마주앉은 형으로 구분되며 그것의 구성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형을 낳게 한다. 이중 가장 많은 형태는 두거리집과 세거리집이다.²⁴⁾

2) 내외부 공간구성 요소

(1) 전통민가 공간 구성의 특성

제주도 전통민가의 외부공간은 올래, 올래목, 마당, 그리고 안뒤를 포함한 모든 주거공간의 마지막 공간으로 나누어 볼 때, 크게 도입부, 전곡부, 발전부와 종결부의 리듬구성을 이루고 있다.

도입부에 해당되는 올래는 다시 물팡돌이나 어귀돌에 의해서 1차 암시를 받는 부분과 정낭에 의해 2차 암시를 받는 부분, 그리고 다리팡돌에 의해 유도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²⁵⁾ 전곡부에 해당되는 공간으로서 올래목은 공간의 전환기능을 한다. 발전부는 마당공간으로 긴 진입로를 빠져나와 다다르는 밝은 공간이다. 종결부는 안정과 휴식을 맺어주는 공간이다. 이러한 리드미컬한 공간 구성에 의해 주택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흥미로운 공간적 체험을 하게 된다. 즉 올래의 길고 지루함이 올래목에서 한번 전환이 이루어지고 마당에서 다시 발전하여 안정

24) 박은영, 앞의 책, p.13

25) 양택훈, 앞의 책, p.24



그림 3. 제주 전통민가의 외부 공간구성

과 휴식의 공간에서 끝을 맺는다.

별동 배치에 따라 각 동 사이의 외부공간들은 우영, 우жат, 놀굽 등으로 자연스럽게 그 기능들이 마련된다. 안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밖거리, 모거리, 놀굽은 사국형성의 요소가 되고 있다. 각 동은 규모나 재료의 위계성은 있으나 높이에 따른 위계는 미약하고 성별에 따른 영역의 분화가 뚜렷하지 않다.

(2) 외부공간

① 올래

올래는 주택에 출입할 때의 진입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의 폭은 2.1m~3.0m 정도이고 길이는 2~18m까지 다양하며²⁶⁾ 형태도 I형, L형, S형 등 다양하다.²⁷⁾ 올래의 입구를 어귀라 부르는데 그 양쪽에는 어귀돌이 놓이고 그 앞에는 말을 탈 때 디딤돌로 사용하는 몰팡돌이 놓인다. 이것들은 주택의 입구의 시작을 암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내부로 더 들어가면 일종의 대문 역할을 하는 정남이 있는데 주인의 부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올래의 양옆을 따라 비가올 때 신발에 흙이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리팡돌이 설치되는데 이것은 주택 내부로 유도하는 기능도

26) 제주도건축사회, 제주건축, 제2집 :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1992

27)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설계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21

하고 있다. 올래는 곧게 나 있지 않고 반드시 구부러져 있는데 이것을 올래목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올래목은 주택내부로 들어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택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긴 진입 공간에 변화를 줌으로써 지루한 감을 없애줌과 동시에 마당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종의 전환의 기능을 한다.

② 마당

마당의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으며, 이곳은 추수기의 작업공간이자 통풍, 채광을 위한 인동간격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비가 올 때에 대비하여 올래의 다리 팽돌에 이어 마당의 둘레에 팽돌을 설치한다.

③ 안뒤

안거리의 뒷벽 한쪽 끝에서 다른쪽으로 원(垣)을 쌓아서 외부와 통하지 못하도록 만든 공간이다. 출입은 상방의 뒷문을 이용하거나 정지뒷문을 이용한다. 여기에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의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세계를 차단하고 넓은 그늘을 만들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주변에는 넓직한 돌들이 깔려있고 주인은 여기에 앉아서 명상에 잠길 수 있도록 휴식공간화 되어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신비로운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시원한 바람이 있는 공간이고 외부와의 시선이 차단되어 타인에 비공개되는 공간이어서 주택의 ‘음(陰)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²⁸⁾

④ 놀굽



탈곡하기 전의 농작물을 묶어 쌓아두거나 탈곡하고 난 짚을 난가리로 썬워 놓은 조영물(造營物)을 ‘놀’이라 하고 이러한 행위를 ‘놀을 눈다’고 한다. 놀을 만드는 자리는 마당 한쪽 구석으로 우천시 침수를 피하기 위해 마당면으로부터 40~50cm 높게 돌로 단을 놓고 평평하게 했다. 이곳을 ‘놀과 놀굽’이라 하고 ‘놀’은 지붕과 함께 경관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⑤ 우영

울다리 안에 건물이 배치되고 난 여분의 터에 채소 등을 심어 부식을 자급하는데 활용되는 공간을 우영, 우영밭 혹은 우짚이라 부른다. 우짚 공간은 우영중 밭으로 쓰이지 않는 허드레터로 외부 수장공간이 되는 곳이다.

28) 양택훈, 앞의 책, P.23

표 3. 제주도 전통민가의 외부공간 구성 요소 및 특징

| 종류 | 이미지 | 특징 | 종류 | 이미지 | 특징 |
|-----------|---|--|----|---|---|
| 올래 |  | -폭, 길이, 형태 다양 -구성:정낭, 어귀돌, 물팡돌, 다리팡돌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전환 기능 | 마당 |  | -바닥은 흙 -추수기의 작업공간, 통풍채광을 위한 인동간격의 공간 -마당 둘레에 팡돌 |
| 안뒤 |  | -안거리 뒤, 원을 쌓아 외부와 차단한 공간 -사적공간, 휴식공간 -음(陰)의 공간 | 눌굽 |  | -탈곡하기전 농작물을 쌓아두는 것 -우천시 침수피해를 막기위해 높게 함 -경관요소 |
| 우영 (우жат) |  | -건물이 배치되고 난 여분의 터에 채소 등을 심은 공간 -우영중 밭으로 쓰지 않는 공간이 우жат | 통시 |  | -변소로서 정지와 떨어진 곳에 설치 -돼지를 사육, 인분 처리 -약간의 담만 설치 |

⑥ 통시

변소를 ‘통시’라 부르는데 일종의 우жат공간에 설치되며 정지 반대쪽 또는 안거리 정지와 멀리 떨어진 밖거리 옆에 위치한다. 그리고 대개 건물의 한쪽 옆을 돌아가서 설치되어 마당에서 직접 보이지 않도록 배려되어 있다. 통시에는 돼지를 직접 사육하여 인분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을 보는 장소에는 지상에서 2~3계단 올라가도록 하여 두 개의 넓고 기다란 돌을 놓았을 뿐 구조물은 없다. 다만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담을 약간 높게 쌓았을 뿐이다.

(3) 평면의 유형과 특징

① 평면유형

평면유형은 일반적으로 안거리의 평면을 중심으로 분류된다. 간(間)분리의 형태에 따라 규모가 작은 것부터 막살이집(2간집), 3간집, 4간집으로 구분된다.

가. 막살이집

막살이집은 직사각형 2칸 우진각 초가집으로서 상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간살은 전면을 이등분하는 평면을 양분하여 한쪽은 정지, 다른 한쪽은 앞으로부터 ‘뭇

뚝’, ‘구들’, ‘고광’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구들 한 쪽에 굴목이 설치되어 있다.

막살이집은 대개가 해안 및 내륙에 산발적으로 나타나며 대개 경제적으로 가난한 주민들과 노인부부들이 산다. 제주도에는 이런 집이 상당수 존재하며, 조선말기에는 더 많이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나. 삼간집

삼간집은 구들, 상방, 정지의 삼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간집에서 상방이 분화되어 나타난 형식이다. 또는 제주초가의 일반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시 부엌간의 평면형태에 따라 ‘한칸형’, ‘중마루형’, ‘부엌내형’으로 분류된다.

ㄱ. 작은 방이 없는 삼간형

평면은 단형으로 장변쪽을 전면으로 삼는다. 평면의 간살이는 전면을 삼등분하는 선으로 평면을 셋으로 나누었고 좌측 간살은 정지, 가운데 간살은 전면으로 난간을 제외한 상방, 우측간살은 앞으로부터 난간, 구들, 고광과 방 우측에 굴목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막살이집과 마찬가지로 상방을 중심으로 평면의 좌우가 바뀌는 수가 있다. 이 삼간집은 부엌과 방 사이에 상방이 발생함으로써 공간분화를 하였다. 이것이 막살이집과 크게 다른 점이다.

‘작은 방이 없는 삼간집’은 비교적 긴 울래를 갖고 있다. 울래는 마당 옆으로 연결되었고 마당은 비교적 크다. 마당 옆에는 놀이 설치되어 있다. ‘안뒤’는 없고 우영만이 존재한다. 우영에는 채소 등을 심어 일상시의 조리에 사용한다.

‘통시’는 ‘돛통(돼지우리)’ 안에 설치하되 부엌과 떨어진 대지내의 구석진 곳에 만든다. 이런 집에는 대부분 신혼부부나 어린자식을 둔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ㄴ. 작은 방이 있는 삼간형

작은 방이 없는 삼간집에서 정지 부분의 일부가 구들로 분화되어 구들 2개가 된 형을 말하며 상방의 일부에 수장공간인 장방이 설치되기도 한다.

삼간집에서 작은 방이 있는 삼간집으로 구조발전, 공간확대가 됨에 따라 또 그 한정된 공간에서 본능적으로 가족간의 독립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경제적 능력이 가능한 데서 작은 방 한칸이 더 늘어나게 된 평면 형태를 말한다.

- 한칸형

작은 방이 없는 집에서 정지공간의 1/2정도를 작은 구들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지

의 앞쪽 또는 뒤쪽으로 바꾸어 배치할 수 있다. 상방에는 ‘장방’이 설치되고 굴목 공간은 다른 평면형에 비해 1/2 크기로 구성되며 난방방식은 외벽측에 출구를 두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작은구들은 정지에서 아궁이를 설치하여 해결한다.

- 중마루형

한칸형 정지공간의 작은 방 일부가 충분할하여 상방과 작은 구들 사이에 생기는 공간에 마루를 깔아 중마루 공간을 구성한 것이다. 상방에 설치된 장방은 다른 평면형과는 다르게 중마루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마루는 부엌의 일부가 되어 부엌공간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부엌내부의 기능을 분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협소한 한칸형 부엌과는 달리 부엌공간이 확대되고 내부기능이 분화하는 것으로 보아 챗방이 있는 옷三·알四間집형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보인다.

- 부엌내형

정지공간의 내부의 작은 구들을 상방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한 형태이다. 외벽과의 사이에 생기는 공간은 부엌의 일부가 되어 난방공간이나 수장공간으로 이용된다. 상방에서 장방을 설치하지 않고 부엌의 살레가 그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부엌 내부의 공간기능이 분화되는 것이다. 평면형태 및 작은 구들의 난방기능이 옷三·알四間집과 유사한 점으로 볼 때 옷三·알四間집으로 발전해 가기 위한 단계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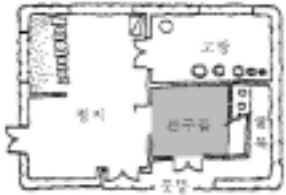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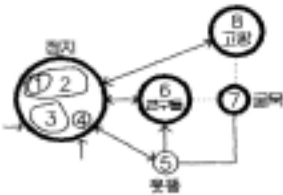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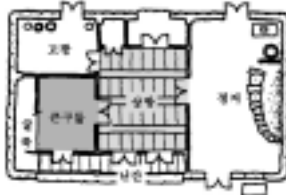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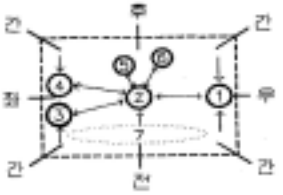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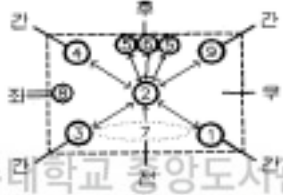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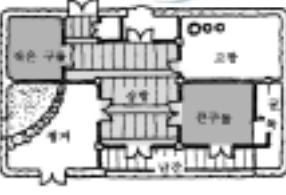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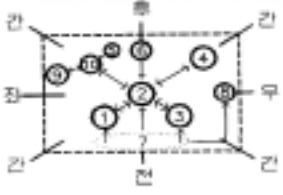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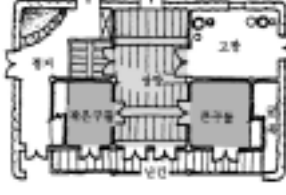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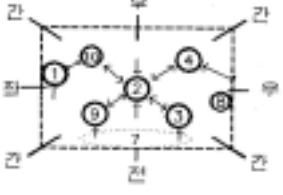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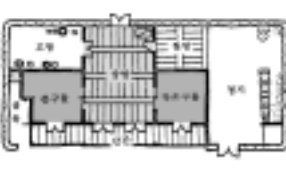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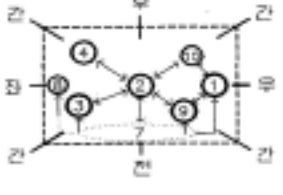
다. 옷三·알四間집

이 주택은 원형적 삼간구조를 토대로 시대적 경과에 호응하여 변형된 평면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주택의 평면구성은 삼간집과 유사하나 구조적 측면에서 위 지붕가구는 삼간이며 아래 평면형태는 사간인 우진각 초가이다.

평면은 장변을 전면으로 삼고 삼간집보다 약간 더 전면이 길다. 평면의 간살이는 중앙에 상방이 설치되고 그 우측(또는 좌측)에 챗방과 작은구들이 전후로 놓이며 또 그것의 좌측에는 부엌이 기다랗게 만들어진다. 상방 우측(또는 좌측)은 삼간집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난간, 구들, 고팡이 있고 방외측에 굴목이 구성된다.

삼간집과 다른 점은 부엌을 다시 전면에서 이등분하여 외부쪽을 정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후로 나누어서 하나는 챗방으로 다른 하나는 작은 구들로 사용하는 점이다. 챗방은 작은 구들이 없는 삼간집의 부엌에 있던 공간의 일부가 독립하여

표 4. 제주도 전통민가의 기본평면과 주공간 구조도

| 구분 | | 도면 | 공간 구성 | 특징 |
|---------|--------------|---|---|--|
| 막살이집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방이 없고 공간을 양분하여 정지와 못뚝, 구들, 고파방으로 사용 -해안 및 내륙 지역에 산발적 분포 -가난한 주민, 노인 거주 |
| 삼간 집 | 작은 방이 없는 삼간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방을 중심으로 구들, 정지의 구성, 좌우가 바뀌는 경우도 있음 -긴 올래를 가지며, 안뒤는 없고 우영만 있음 |
| 삼간 집 | 한칸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은 방이 없는 집에서 정지공간의 1/2정도를 작은 구들로 사용하는 것 -상방의 굴목은 외벽에 일반적으로 외벽에 설치 -작은구들난방은 정지에서 |
| | 중마루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칸형 정지공간의 작은 구들 일부가 충분하여 상방과 작은 구들 사이에 중마루 공간을 구성한 것 -웃삼·알四間집으로 변하는 과정으로 보임 |
| | 부엌내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지공간의 내부의 작은 구들을 상방에서 직접 출입하도록 한 형태 -부엌공간의 기능적 분화 -웃삼·알四間집으로 변하는 과정 |
| 웃삼·알四間집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간구조가 시대에 따라 변형된 평면구조 -부엌을 전면에서 이등분, 외측을 정지로, 내측을 전후로 나누어 챗방과 작은 구들로 사용 |

하나의 방을 이룬 곳이다. 이것은 주부의 가사노동을 절감함과 동시에 식사공간의 위생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생활공간인 상방으로 공간분화를 한 것이다.

웃삼·알四間집은 삼간집에 비하여 규모가 크고 부엌공간이 분화하여 작은 구들과 인접한 챗방이 더 있는 구조상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② 평면적 특징

제주도 전통민가의 평면적 특징은 겹집형식의 일자형으로 곡가(曲家)가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3간집에서 보면 상방을 중심으로 한쪽에 큰 구들의 뒷간으로 고팡이 놓이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구들 또는 정지 등이 놓인다. 특이한 것은 이러한 고팡, 작은 구들 또는 방이 거의 고정적 위치에 있다.

그리고 앞을 통해서는 완충공간인 퇴에서 마당으로 연결되고 뒤쪽으로는 뒷문을 통해서 안뒤로 트인다. 전후좌우에 뒷간이 있어 측면의 퇴는 난방을 위한 굴목이 되고 고팡과 정지는 뒷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방에 비해 넓다. 이러한 퇴는 낮은 기단과 함께 동선연결을 원활히 해주며 방에 약천후의 기후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중간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취사와 난방의 분리에서 얻은 합리적인 평면 구성이 제주 민가의 두드러진 장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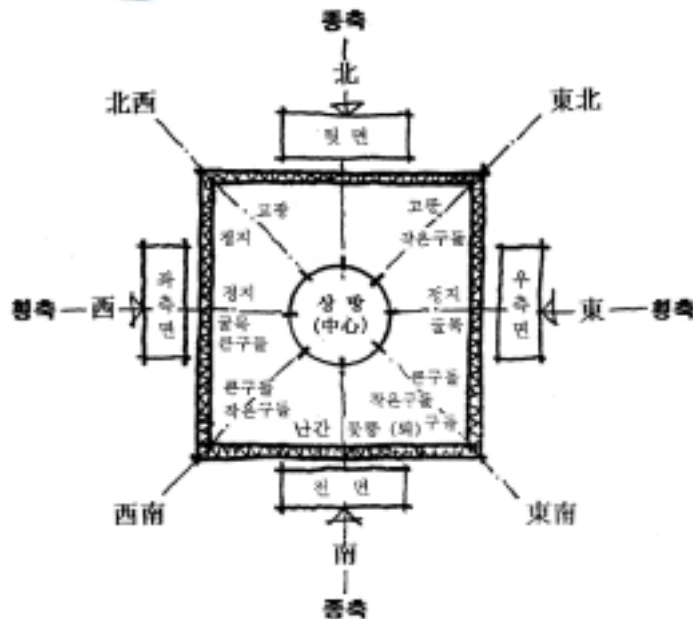


그림 4. 유형화에 의한 제주 전통 주택의 공간구성의 예

(4) 내부공간

① 난간

난간은 마당과 상방의 중간 공간으로 상방기능의 질을 높여주고 비, 바람과 일광의 여과(濾過), 일시적 수납 공간에 유용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중간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난간은 마당에서 상방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공간으로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경계공간이다. 이것은 바닥이 마당보다 높고 상방과 같아서 마당과는 구분이 되며 밖으로는 개방되어 있으면서도 안으로는 연속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공간의 연장공간이며 내부공간의 시작이다. 비바람이 칠 때는 상방과 구들에 비가 직접 들이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따사로운 햇볕이 들 때는 상방에서 나와 일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된다.

② 상방(마루)

주택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다목적 공간으로서 개방적인 공간이다. 상방은 2간형 민가에서 3간형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부엌공간이 기능분화된 것이다. 따라서 3간 집과 4간집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상방은 집주인의 권위를 나타내는 장소이기도 하며, 가내의 평안과 부귀를 담당하는 가옥의 대표신을 모시는 곳이기도 하다. 건물 전체의 면적을 볼 때 정지와 더불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혼상제가 행하여지는 공적 요소를 갖는 공간이다. 그리고 전, 후면의 외부공간과 직접 접하고 있어서 통풍에 유리하다.

③ 구들

큰 구들과 작은 구들이 있는데 큰 구들은 부부가 사용하고 작은 구들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밖거리 구들에는 세대가 전혀 다른 성장한 아들부부 또는 경제력을 상실한 노부부 등이 산다. 구들은 사적 생활공간이며, 또한 조상신을 모시는 신성한 공간이기도 하다.

④ 정지

주택에서 정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2간집에서 1/2, 3간집에서 1/3, 4간집에서 1/4이 일반적이다. 정지는 가사노동의 공간이며 대표적인 여성공간이다.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으며 벽은 돌을 쌓아 흙만 바르며 천장은 구조가 노출되어 있다. 정지의 기능은 취사공간, 저장공간 등이며 상류층의 3간집이나 4간집에서는 정지가 별동으로 떨어져 모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다. 정지는 상방이나 쳇방과 연결(부엌+마루,

부엌+챗방+마루)되어 기능분화가 잘되어 있다.

⑤ 챗방

챗방은 상방과 같은 마루방이다. 평상시는 식사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의식 행사시는 배선실적 성격의 공간으로서 부엌+챗방+마루로 연결되어 있어 공간별 기능분화가 잘 되어 있다. 식사공간의 위생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상방으로부터 기능 분화한 것이다. 이는 근대적 공간분화라는 점에서 제주도 민가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⑥ 고팡

식량과 씨앗 등을 담은 항아리와 기타 물품을 보관하는 저장공간이다. 흙바닥이거나 우물마루의 바닥에 벽은 토벽이고, 천장은 노출반자이다. 환기를 위한 두 개의 작은 창을 내고 상방에서 통한다. 고팡이 상방을 사이에 두고 부엌과 떨어져서 큰구들에 접하여 위치한 이유는 평면계획상 분할식 방법에 의한 한칸 나누기를 합리적으로 한 것과 소농 등의 생활환경에서 식량의 중요성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곳은 무속신의 영역이며 제사 때에는 이 신을 위해 고팡상을 차리기도 한다.

표 5. 제주도 전통민가의 내부공간 구성 요소 및 특징

| 종류 | 이미지 | 특징 | 종류 | 이미지 | 특징 |
|--------|-----|---|----|-----|---|
| 난간 | | -마당과 상방의 중간공간 -내외부의 경계공간 (비, 햇볕의 조절) | 상방 | | -주택 중앙부의 다목적 공간 -권위상징, 관혼상제 등 공적공간 |
| 구들 | | -큰구들은 부부용, 작은구들은 아이용 -밖거리 구들은 아들부부/노부부용 | 정지 | | -가사노동의 공간, 여성의 공간 -3칸, 4칸집에서는 별동처리(모거리) |
| 챗방 | | -상방과같은 마루방 -식사공간으로 활용 -부엌+챗방+상방: 공간별 기능분화 | 고팡 | | -식량 등 저장공간 -큰구들에 접하여 위치(식량 중시) -제사때 고팡상 |
| 퇴 (마루) | | -난간과 공간적으로 동일(뭇똥) -난간에 마루가 깔리면 텃마루 | 굴묵 | | -난방을 위한 공간 -보건위생적 공간 -상부는 방에서 벽장으로 이용 |

⑦ 퇴

상방과 마당 사이에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완충공간으로서 외부에 개방되어 있으며 상방 기능의 질을 높여주고 비바람과 일광의 여과, 일시적 수납공간에 유용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중간 성격을 지닌다. 바닥이 마당보다는 높고 상방과는 같아서 마당과는 구분이 되면서 밖으로는 개방되어 있으면서도 안으로는 연속되어 있다. 비바람이 칠 때는 상방과 구들에 비가 직접 들지 않도록 완충공간의 역할을 하고 따사로운 햇살이 들때 방에서 나와 일광을 즐기는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⑧ 굴목

굴목은 난방을 위한 공간으로 주택의 보건위생적 공간에 속한다. 굴목의 상부는 방에서 벽장으로 사용되고 그 밑에는 방의 중앙위치에 불을 뿜 수 있는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다. 굴목의 고풍쪽 구석에는 불을 때고 난 재를 쌓아두는 공간으로 쓰고 있다.

3. 의장적 요소에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

제주 전통주거의 기본인 입면 구성은 굵은 새줄로 엮어맨 얇은 물매의 유선형 사다리꼴 지붕과 이를 받쳐들고 있는 암회색 다공질 현무암의 벽체로 이루어져 있다. 지붕과 벽은 상호재질 대비와 명도 대비를 이루고 덧벽을 서까래 밑까지 바싹 쌓지 않고 그늘을 줌으로써 이 대비를 더욱 강조하였으며, 석벽이 더욱 힘차게 버티는 느낌을 주기 위하여 약간 경사지게 쌓는다.

1) 가구적 요소

① 기단

다듬은 현무암을 일단 15cm 내외의 높이로 그 폭은 처마 선단까지 폭 90cm로 축조되었는데, 잇돌이라 불리운다. 제주도 민가의 기단은 다른 지역보다 매우 낮고 낮은 만큼 마당과 퇴의 공간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19세기 이후 위계를 나타내기 위해 안거리의 기단을 높이는 변화가 나타난다.

② 석벽

석벽은 목조구체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구체 밖으로 쌓은 비내력벽으로 현무암으로 쌓아 내피와 외피를 분리하는 특징이 있다. 석벽에 사용하는 돌은 15~30cm 정도의 두께이고, 지면에서 상부 마무리까지의 높이는 1.9m 내외이며, 10cm 내외의 기울기로서 상부로 갈수록 들여쌓아 건물의 안정감을 주는 요소가 된다.

③ 벽체

외부 일부 및 내부 벽체의 하부는 판장벽이며 상부는 흙마감이다. 벽체구조 방식은 심벽식으로 기둥이 밖에서 보이도록 기둥 사이에 벽을 만들었다. 외벽은 거의 이중벽으로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다공질 현무암으로 둘러 쌓은 것이 육지부와 비교해 보았을 때 특색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내벽은 경제적 사정에 따라 구조재가 다른데 토벽 상태 또는 토벽 위에 도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의 하반을 목판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많다.

④ 풍채

풍채는 각목으로 뼈대를 짠 위에 새를 얹어서 만든 것으로 비바람이 칠 때는 이것을 내려서 비바람을 막고 햇빛이 비칠 때는 올려서 땀별이 비추는 것을 막는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 개폐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⑤ 담

현무암으로 높이 1.7m 내외로 경계와 공간구획, 방풍의 목적으로 쌓아 주요 경관 요소가 되며 통일성을 이루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⑥ 지붕

우진각 지붕으로 경사가 얇은 것은 비바람에 대한 고려이다. 대부분 초가이며 '새'를 펼친 후에 직경 5cm 내외의 '새'로 꼬은 줄(30~40cm 간격)로 엮어매어 지붕이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한다.

⑦ 개구부

상방과 정지에는 판장문을 설치하며, 구들의 창호를 비바람에 보호하기 위하여 덧문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널문은 모든 외부문에 이용되는 것으로 판자 널문을 이용하는데 견고하고 폐쇄적인 것이 특색이다. 이것은 강풍방지의 기능 뿐만 아니라 외부차단의 경계심리도 잠재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재료







① 새

새는 지붕의 재료가 된다. 새를 펴서 지붕을 두텁게 덮으며, 새끼를 꼬아서 격자형으로 짜서 처마 횡목에 고정시킨다. 이러한 새는 한라산 기슭 오름의 새왓에서 꽃대가 올라오기 전 가을에 베어 놓았다가 겨울에 쓴다.

② 돌(현무암)

현무암은 제주도에서 제일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재료 중의 하나였다. 제주도의 생성된 배경을 지질학적으로 볼 때 제3기 말에서 제4기 초에 걸쳐 수습 차례에 걸친 용암분출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제주의 지질표층은 현무암층으로 덮히게 되었다.²⁹⁾ 현무암층으로 이루어진 기반과 남태평양에서 휘몰아쳐오는 태풍의 길목에 위

표 6. 제주도 전통민가의 의장적 요소의 구성 및 특징

| 종류 | 이미지 | 특징 | 종류 | 이미지 | 특징 |
|--------|-----|---|------|--|--|
| 가구적 요소 | 기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략 15X9cm정도 -잇돌이라고도 불림 -다른 지역보다 기단이 낮음. (원활한 연결) | 외부경관 | 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무암으로 높이 1.7m 내외 -경계과 공간 구획, 방풍의 목적 |
| | 석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조구체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비내력벽) -들어쌓아 건물에 안정감 부여 | | 지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진각 지붕 -얇은 것은 비바람에 대한 고려 -새로 얹어땀 |
| | 벽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벽식(기둥이 보이도록 벽만듬) -외벽은 이중벽 -내벽은 토벽 혹은 도장(경제적차이) | | 개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방과 정지는 판장문 -구들엔 덧문 설치 -외부분은 판자널문 |
| | 풍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목 뼈대에 새를 올려 만든 것 -비바람 및 햇볕 조절 (개폐 가능) | 재료 | 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및 풍채의 재료 -새끼를 꼬아 격자형으로 고정 |
| | | 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담의 재료 -바람을 막는 방패 역할 및 경계 역할 | |

29) 김세균, 제주의 돌, 제주도, 1987

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제주인들은 바람을 이겨내면서 지천으로 널려진 돌을 생활 도구 및 건축재료로 이용하면서 나름대로의 고유한 문화를 창조하였다. 주로 현무암은 전통민가에서 돌담의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섬 전체를 하나의 돌의 선으로 연결하다시피 이어놓은 ‘밭담’들은 제주를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웃과 이웃, 마을과 마을, 밭과 밭을 나누는 경계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제주의 전통적인 민가는 거의 전부가 돌로 이루어졌는데 울담부터가 다공질의 현무암으로 쌓여진 돌담으로 되어 있어 풍속 영향을 낮추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고 아래에는 정주석을 만들어 정낭을 끼워 놓고 대문을 대신했으며 정지의 아궁이, 초석과 기단, 그리고 물허벅을 놓는 물팡도 돌을 이용하였다. 놀굽도 잡석을 쌓아 만들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생활도구, 농기구에도 돌이 널리 사용되었다.

3) 외부경관

제주의 전통 민가의 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경관 요소로서는 기후적 특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비와 바람은 초가의 지붕과 풍채, 돌담 등 지역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제주도의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와 전역에 펼쳐져 있는 크고 작은 오름 역시 제주 전통 민가의 외부경관적 측면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외부경관적 요소 가운데 현대적 적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면은 오름, 바다/하천, 바람으로 규정할 수 있다.

4. 제주도 전통 건축의 지역적 특성 도출

제주도 전통건축의 지역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제주도 전통민가를 고찰하였다. 즉 자연환경과 인문사회 환경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고, 제주도 전통민가를 고찰하여 배치와 내외부 공간구성, 의장적 요소라는 3가지 항목 각각에 대한 세부적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 3항목을 기준으로 제주도 전통 건축의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제주도 전통 건축의 지역적 특성

| 구분 | 구성 요소 | 계획 요소 | |
|--------------|--------------|---|--|
| 배치 | 겹집구조 및 분동 배치 | -겹집 구조, 다동분립형의 주거 구성 -건물 자체는 一자형이지만 분동 배치 : 비교적 폐쇄적 형태 -겹집구조/다동분립 배치로 인한 폐쇄성과 상방마루의 개방성을 동시에 보임 | |
| | 지형 조건에 순응 | -중앙의 상방과 좌우의 온돌방에 비해 덜 발달된 구들 | |
| 내외부 공간 구성 요소 | 옥내 공간 | 침거 공간 | 큰구들(정지와 분리)과 작은구들 |
| | | 전용 공간 | 상방의 다중적 기능 |
| | | 수장 공간 | 정지와 떨어져 큰구들에 접하여 있음 |
| | | 취사 공간 | 분구(조리)와 화구(난방)의 분리식, 굴목의 존재 |
| | | 행랑 공간 | 전용공간인 상방이 행랑공간 역할 |
| | 매개 공간 | 매개 공간 | 퇴(못뚝, 난간, 킷마루), 전후의 퇴는 반드시 나타남 |
| | 옥외 공간 | 진입 공간 | 올래 : 진입로의 기능, 휘어짐으로 방풍 및 프라이버시 보호 |
| | | 신앙 공간 | 안뒤 : 신앙 공간이 옥외에 위치(옥지와외 차이), 안거리에서만 출입, 통풍 및 휴식공간으로서도 기능 |
| | | 작업 공간 | 마당 : 중부도서지역에비해 마당 협소(바람의 영향), 장방형 |
| | | 노적 공간 | 장독대와 놀음 |
| | | 배변 공간 | 통시 : 인분을 사료로 처리 |
| 방호물 | | - 방풍을 위해 돌담으로 사면을 모두 위요, 정낭 설치 | |
| 의장적 요소 | 가구 요소 | 기단 | 바람의 피해를 덜기 위해 기단을 낮춤 |
| | | 기둥 | 기둥의 높이 낮으며, 마루에서 처마도리까지도 낮음 (방풍위해) |
| | | 벽체 | -목조구체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중의 담벽 -들여쌓기를 통해 안정감 구현 |
| | | 처마 | 처마를 낮고 깊지 않게함(방풍), ‘새’로 엮음 |
| | | 지붕 | 낮고 완만한 경사의 지붕, 격자형으로 새를 엮음 |
| | | 개구부 | -좌향일치형. 좌우벽은 장막벽이 설치되어 취난공간, -상방문 |
| | | 방풍시설 | 돌담, 방풍림, 풍채 |
| | 재료 | 지붕재료 | 새 |
| | | 벽재료 | 돌(현무암), 흙, 나무. 내벽은 토벽상태이거나 도장벽 |
| | 외부 경관 | 오름 | |
| 바다 / 하천 | | | |
| 바람 | | | |

IV. 제주도 현대건축에 있어 지역적 특성의 적용 방향

1. 전통민가에서 보이는 제주도 건축의 지역적 특성

추운지역에서 유리한 겹집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폐쇄적 형태를 지닌다. 그와 동시에 홑집에서 보이는 마루의 개방적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 연중 기온이 높은 제주도의 기후 특성상 온돌구조가 덜 발달되었으나 바람이 많이 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적 특성을 보인다.

- 1) 마당을 중심으로 별동 배치를 하여 전체적으로 폐쇄적 형태를 지닌다.
- 2) 좌향은 남향배치를 선호하나 북사면에서는 동향이나 서향이 유리하다.
- 3) 상방마루라는 공간요소는 각 공간을 연결해주는 행랑공간의 기능과 여름에 침거실로 전용되는 기능을 지닌다. 겨울에는 옥내 작업공간으로도 활용되며 여름에는 통풍효과를 높여주어 제주도 기후의 특성에 적절한 공간 구성을 가능케 한다.
- 4) 겹집 구조와 다동분립형 배치의 폐쇄성과 함께 높은 개구율과 상방마루 공간의 개방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 5) 제주도 전통민가에서 전후의 되는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에 대한 구조적인 역할과 함께 비바람의 여파, 작업공간 및 수납공간으로서의 기능 등 작지만 많은 효과를 지닌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6) 전체적인 외관은 지붕을 얽어맨 새끼줄과 낮으막한 돔형태의 지붕모양, 전체적으로 낮은 높이의 입면구성, 그리고 건물을 둘러싼 돌담의 폐쇄적 형태와 돌로 된 벽체의 특징적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 7) 실의 기능분화가 자유스럽고 분산적인 경향이 강하다.
- 8) 올래(도입부)-올래목(전곡부)-마당(발전부)-안뒤(종결부) 리듬의 독특한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다.

2. 제주도 현대건축의 지역성 반영 사례 고찰

제주도 전통건축의 지역적 특성의 현대적 적용 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으로는 대상선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6년부터 행하여진 제주시 건축상 수상작품과 2000년 이후 시행된 건축설계현상공모 작품중에서 선정하였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회의 제주시건축상이 있는데, 격년제로 주거 건축과 일반건축 부분을 구분하여 수상하므로 제주시 건축상 중에서 주거건축 다섯 사례와 일반건축부분 다섯 사례에서 탐라상, 한라상, 이어도상 등 수상작품을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건축설계 현상공모 중에서의 선정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시군에서 각각 공공성이 강한 한 공모전씩을 선정하여 당선작과 우수작, 가작 및 참여작 등 사례별로 3개 작품씩 선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선정된 연구대상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관련 문서를 통한 문헌조사와 해당 설계사무소를 방문 조사하였고, 사례별 현장답사를 통하여 연구를 실행하였다. 선정된 제주시건축상 수상작품의 목록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제주시 건축상 수상작품 목록

| 구분 | 일반건축물 부분 | | | | 구분 | 주거건축 부분 | | | |
|--------------|---------------------|---------------------------------|----------------------|--------------------------------------|---------------|-----------------|---------------------------------|-------------------|--|
| | 탐라상 | 한라상 | 이어도상 | 장려상 | | 탐라상 | 한라상 | 이어도상 | 장려상 |
| 1회 (1996) | 제주관광 민속관 | 김석훈씨 주택 | 세기건설 사옥 | - | 2회 (1997) | - | 이정식씨 주택 | 문영종씨 주택 | 김홍복씨 주택 |
| 3회 (1998) | - | 신광빌딩 | 예치과 의원 | 1.산업정 보대학 학생회관 2.제주연 동빌딩 | 4회 (1999) | - | 허환씨 단독주택 | 양유화씨 다가구주 택 | 1.김영권씨 주택 2.현진호씨 주택 3.임성신씨 주택 |
| 5회 (2000) | 제주도 중소기업 지원센터 | 아라 초등학교 | 현대대상 화재보험 제주사옥 | 중앙성당 | 6회 (2001) | 이도동 K씨 주택 | 이도동 J씨 주택 | K씨 단독주택 | 삼도동 다가구 주택 |
| 7회 (2002) | 제주시 연동 복지회관 | 이상종합 건설(주) 빌딩 | 제주 YWCA 회관 | 1.JIBS 제주방송 2.제주충 신교회 | 8회 (2003) | - | 1.이도2동 K씨 주택 2.연동 가가주택 | K씨 주택 | 연동 S주택 |
| 9회 (2004) | 휴양펜션 “돌과 바람” | 1.제주컨트리 뉴코스 건물 2.제주시 기적의 도서관 | | | 10회 (2005) | 외도동 L씨 주택 | 용담동 다가구 주택 | K씨 다가구 주택 | 용강동 K씨 주택 |


1) 1996~2005년의 제주도 현대건축 고찰 :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일반건축물 부분)

(1) 1996년 제1회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1996년 시행된 제1회 제주시건축상의 수상작은 제주관광민속관과 김석훈씨 주택, 세기건설 사옥이다. 처음 시행된 단계여서 지금과 같이 탐라상, 한라상, 이어도상, 장려상의 체계가 미처 확립되지 못한 시기로 시상 내역도 금상, 은상, 동상이었다. 또한 지금과 같이 격년제로 일반건축물과 주거건축을 구분하여 시상하던 제도 역시 확립되지 못했던 시기여서 일반건축물 2건과 주거건축 1건에 시행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회 제주시건축상 부분을 일반건축물이 2건 포함된 관계로 제주도 현대건축 고찰에서 일반건축물 부분으로 포함시켰으며, 심사평을 통해 살펴본 수상작의 건축적 특징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즉 금상을 수상한 제주관광민속관은 대지에 적당한 레벨차이를 두어 건물로의 접근에 변화를 주었고 비교적 현대적

표 9. 1996년 제1회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 구분 | 이미지 | 도면 | 특징 |
|---------------------|---|---|---|
| 대상 : 제주관광 민속관 |  |  | -설계 : 김용철 -제주의 방사탑에서 형태적 차용 -형태 언어의 직설적 차용으로 건축적 호소력 감소 |
| 은상 : 김석훈씨 주택 |  |  | -설계 : 예림 건축사사무소 -평면 : 스킵 처리 -2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에 서 독립된 생활 (전통적 공간 요소 반영) |
| 동상 : 세기건설 사옥 |  |  | -설계 : 반 종합건축 -대지의 적극적 해석 -주변환경을 고려한 입면 처리 |

인 재료와 결합하여 민속적인 색채가 입면에 반영되었으며, 은상을 수상한 김석훈 씨 주택은 평면을 스킵으로 처리한 것과 2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도록 계획하였고 입면적인 변화도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환경에 맞는 재료와 형태로 다듬어 지도록 하는게 좋겠다. 동상을 수상한 세기건설사옥은 좋은 대지를 잘 활용하였고 입면처리도 무난하였다.

(2) 1998년 제3회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1997년 시행된 제2회 제주시건축상부터 적용된 탐라상, 한라상, 이어도상, 장려상의 시상체계가 일반 건축물부분에 적용된 제3회였으나, 작품의 특성상 탐라상은 미시상하였으며, 신광빌딩과 예치과의원이 각각 한라상과 이어도상을, 제주산업정보대학 학생회관과 연동빌딩이 장려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신광빌딩의 건축적 특징은 협소하고 비틀어진 대지의 형태와 경사지라는 열악한 대지조건을 극복하여 주변환경과의 상호 연결성을 증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상업건축물로서의 미적 감각을 표출 역시 강조하였다. 또한 유지관리의 용이,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하였으며 기존 일반건축물의 형태를 탈피한 입면효과를 이용하였다. 원(커튼월 부분)과 직선(벽체 부분)의미를 적절히 조화시켜 미려한 외관창출과 정면부분을 커튼월로 처리하여 주변공간을 인입시키는 효과를 주었으며 건물 상층부의 기둥과 보를 노출시켜 커튼월의 물성과 맞물리게 함으로써 현대적 감각의미를 추구함과 동시에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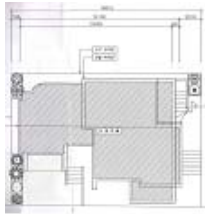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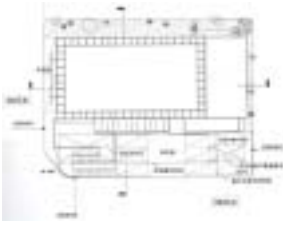
이어도상을 수상한 예치과의원은 전면 가로변에 투명하면서도 깨끗한 형태의 이미지를 부여해 가로에 변화를 주었고, 건물전면은 2개의 매스로 나누어 가로의 축과 대지의 축을 맞추어 조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벽면은 중후한 석재로 마감하여 안정감과 무게감을 부여하고 도로 전면에는 단순한 면적구성을, 측면에서는 부드러운 곡선의 발코니로 처리하여 건조함을 해소하고 단순함을 탈피하였으며, 틀어진 예각의 유리 mass와 석재의 경사진 mass는 중첩되고 관입되는 형태로서 역동성을 부여하였다.

제주산업정보대학 학생회관 건물의 건축적 특징은 대학생 공동체의 장으로서 다양한 문화, 예술활동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대지의 사용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 한정된 공간내에서 학생들의 편의시설의 확충, 특히 1층의 중앙홀 휴게

실은 계단형으로 학생들이 용기종기 모여앉아 담소를 나누는 휴게공간과 소규모의 음악회 및 놀이마당 등의 문화공간, 동아리실과 외부와의 공간 및 동선의 원활한 흐름과 효율적 기능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의도되었다. 또한, 외부형태는 학생회관의 상징성으로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의미화하여 디자인되었다.

장려상을 공동수상한 연동빌딩의 건축적 특징은 인근주거지역내 인접한 기존 건물들의 어둡고 복잡한 분위기를 본 건물이 건축됨으로서 주변에 변화를 추구하고자 단순하면서도 밝고 통일화된 칼라의 화강석으로 계획하였다.

표 10. 1998년 제3회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 구분 | 이미지 | 도면 | 특징 |
|-------------------------------|---|---|---|
| 한라상 : 신광빌딩 |  |  | -대지위치: 도남동 83-54 -경자시의 열악한 대지조건 극복 -주변환경과의 상호 연결성 증진 -현대적 감각의 미 추구 |
| 이어드상 : 예치과의원 |  |  | -대지위치: 제주시 도남동 75-3번지 -가로축과 대지의 축을 맞추어 조화를 추구 -도시를 끌어 들이는 가로의 역할 -형태의 역동성 부여 |
| 장려상 : 제주산업 정보대학 학생회관 |  |  | -대지위치: 제주시 영평동 2235번지 -대학생 공동체의 장 추구 -동아리실과 외부공간과 동선의 원활한 흐름 지향 |
| 장려상 : 연동 빌딩 |  |  | -대지위치: 제주시 연동 283-1번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연계시켜주는 의미 -출입구를 단일화하여 건물 내외부의 산만함을 최소화 |

(3) 2000년 제5회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도로 및 배치계획의 적합성, 작품의 예술성, 설계계획의 합리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경제성 및 공공성, 도시환경 문화의 기여도 등의 기준으로 선정된 2000년 제 5회 제주시건축상 수상작품은 탐라상에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한라상은 아라초등학교, 이어도상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주사옥, 장려상은 중앙성당이 선정되었다.

제5회 제주시건축상에 대한 총평은 제주지역의 향토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건축에 있어 내부공간 연출에 아름다움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건축색

표 11. 2000년 제5회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 구분 | 이미지 | 도면 | 특징 |
|------------------------------------|---|---|---|
| 탐라상 :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 |  |  | -설계 : 건축사사무소 천미 -외부공간과의 연계, 관통성이 훌륭 -수평성을 강조하여 제주의 풍토를 반영 -보편적 재료 사용 |
| 한라상 : 아라 초등학교 |  | - | -설계 : 예원 건축사사무소 -학교건물 재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 -기능성을 강조한 합리적 공간 추구 |
| 이어도상 : 현대해상 화재보험 제주사옥 |  |  | -설계 : (주) 간삼종합건축 -초현대적인 건물 -스마트하고 단순명료한 디자인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부족 |
| 장려상 : 중앙 성당 |  |  | -설계 : 우신 건축사사무소 -고딕적 외관 (식민주의적 성격) -지역적 재료 사용의 미비는 아쉬움 -시공의 치밀함 강조 |

채, 간판 등 세부사항에 세밀함이 떨어지고 있고, 차후 이용자의 유쾌함 등도 비교

적 덜 고려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탐라상을 수상한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건축적 특징은 외부공간과의 연계, 관통성이 훌륭하고 수평성을 강조하여 제주의 풍토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재료, 색채 등에서는 지역적 특성이 다소 부족하다. 또한 한라상을 수상한 아라초등학교의 특징은 초등학교의 재건축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있지만, 기능과 외관의 조화성이 미약하고 내부공간도 지나친 기능성의 추구로 인하여 흥미로운 공간연출이 제한적이며, 특히 색채와 시공상의 세밀함이 떨어진다. 이어도상을 수상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주사옥은 초현대적인 건물이고 스마트하기는 하나 조형언어의 독창성이 미흡하고 그렇다고 풍토성을 지니지도 못하였으며, 특히 내부공간 연출이 건물규모에 비해 미약하다. 장려상을 수상한 중앙성당은 외관은 고딕이지만 너무 식민주의적이며 내부공간의 연출도 미약하고 외부 벽돌이 제주의 것이었으면 바람직하였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붉은 벽돌로 디자인되어 아쉬움이 있으나 시공면에서는 치밀함이 돋보인다.

(4) 2002년 제7회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2002년 일반건축물 부문으로 선정된 제7회 제주시건축상은 제주시 연동 복지회관이 탐라상을 수상하였으며, 이상종합건설 빌딩과 제주 YWCA 회관이 각각 한라상과 이어도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JIBS 제주방송 사옥과 제주충신교회/유치원이 장려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제주시 연동 복지회관의 건축적 특징은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강조되었고, 수평성을 강조하여 제주의 이미지 반영에 대한 고민이 잘 반영되었으며 주어진 대지조건과 조화를 이루어 건물의 면분할의 간결미를 강조하였다. 또한 한라상을 수상한 이상종합건설 빌딩은 건물 전체를 한 공간으로 처리되지 않고 동선의 분리를 통해 공간적 분할을 시도하여 다양한 공간체험을 유도하긴 하였으나 계단 및 재료 사용이 애매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어도상을 수상한 제주 YWCA 회관은 주변환경 및 대지여건을 적절히 반영하였으며 기능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통해 단순명료한 디자인을 추구한 건축적 특징이 있다. 장려상을 공동 수상한 JIBS 제주방송 사옥과 제주충신교회는 각각 현대적인 건물로 단순명료한 디자인과 합리적 기능 추구 및 종교 시설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및 해석이 돋보인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12. 2002년 제7회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 구분 | 이미지 | 도면 | 특징 |
|---------------------------------------|---|---|---|
| <p>탐라상 : 제주시 연동 복지회관</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 : 예원 건축사사무소 -주변환경과의 조화 강조 -수평성을 강조하여 제주의 이미지 반영 -주어진 대지조건과 조화 -건물의 면분할의 간결미 |
| <p>한라상 : 이상 종합건설 빌딩</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 : 가우 건축사사무소 -한 공간으로 처리되지 않고 동선의 분리 처리 -계단 및 재료 사용에 애매한 부분도 있음 -도심지내 작은 공간 지향 |
| <p>이어도상 : 제주 YWCA 회관</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 : 건축사사무소 김건축 -기능에 대한 합리적 접근 -단순명료한 디자인 추구 -주변환경 및 대지여건의 적절한 반영 |
| <p>장려상 : JIBS 제주방송 사옥</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 : 우신 건축사사무소 -현대적인 건물로도 단순명료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부족 주변여건 반영 부족 |
| <p>장려상 : 제주충신교 회/유치원</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 : 김재관 건축사사무소 -종교 시설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및 해석 -지역사회에 대한 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의 반영 -시공의 치밀함 강조 |

(5) 2004년 제9회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2004년 제주시건축상은 탐라상으로 휴양펜션 “돌과 바람”과 공동수상한 한라상 2작품 제주컨트리 뉴코스 건물, 제주시 기적의 도서관 등 3작품 밖에 수상하지 못했는데 이는 한라상 공동수상으로 이어도상을 선정하지 않은 것과 건축물 자체의 공간구성, 디자인 등이 훌륭하여 장려상에 선정된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이 건축물의 입지, 조망 및 해안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의 이유로 건축상 대상 건축물로 부적절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으로 미수여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수상작품들의 건축적 특징은 표 13에서와 같이 나타나는데, 우선 탐라상 수상작품인 휴양펜션 “돌과 바람”은 전원적이며 친환경적 건물로서 주어진 대지 안에서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건물을 곡선으로 처리한 점과 외부공간을 적절히 활용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된다. 또한 지면과 별로 높지 않은 건물 바닥의 처리, 깔끔한 외관과 단순한 처리로서 제주 경관을 조용하게 끌고 간 측면과 내부 공간 처리

표 13. 2004년 제9회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 구분 | 이미지 | 도면 | 특징 |
|----------------------------|---|---|--|
| 탐라상 : 휴양펜션 “돌과 바람” |  |  | -설계 : 예원 건축사사무소 -전원적이며 친환경적 건물 -제주 전통의 안밖거리 개념 삽입 -지면에 낮게 건축하는 등 제주 경관에 대한 고려 |
| 한라상 : 제주컨트리 뉴코스 건물 |  |  | -설계 : 건축사사무소 김건축 -값싼 재료로 부담감 없이 간결히 외관 처리 -단순한 형태 및 외부 조경 (연못)의 탁월한 수용 |
| 한라상 : 제주시 기적의 도서관 |  |  | -설계 : (주)기용건축 -까다로운 대지 조건에 대한 적절한 수용 -모던한 외형과 조화로운 색채, 한라산의 경사에 맞춘 경사지붕의 처리 |

에 있어서도 제주 전통의 안밖거리 개념을 삼입했으며 향후 전파성이 있을 수 있는 건물이라고 평가된다

한라상을 수상한 제주컨트리 뉴코스 건물은 값싼 재료로 부담감 없으면서 간결하게 외관을 처리한 점이 높게 평가 되었지만 부담감을 주지 않으려고 처리한 다양한 재료들의 결합이 다소 어울리지 않은 듯한 모습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이 건물은 단순한 형태와 외부의 조경(연못)을 끌어들이는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규모가 너무 작아서 다른 건물과의 비교에 있어 조금 낮게 평가되었다.

한라상을 공동수상한 제주시 기적의 도서관 건물의 경우는 까다로운 대지 조건을 잘 활용하여 모던한 외형과 튀지 않는 색채, 한라산의 경사에 맞춘 경사지붕의 처리 등 산뜻한 느낌 및 기능과 이미지를 살린 완성도 높은 건물로 평가된다. 다만 어린이 도서관에 맞지 않는 스케일감과 제주 지방 기후에 맞지 않은 냉방 시설비과다 때문에 지적이 있었다. 제주 기후에 맞도록 단열이라던가 혹은 맞바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은 단점이라 할 수 있겠다.



















(6) 소결

이상과 같이 제주시건축상 일반건축물 부문 수상작들을 통해 살펴본 제주도 현대건축의 건축적 특징 및 지역적 특성의 반영 내용을 3장에서 고찰한 건축구성적 요소와 의장적 요소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다음 표 1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건축물의 경우 지역적 특성의 반영이 극히 미비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제주 건축의 지역적 특성이 주로 민가를 통해서만 규명되기 때문이라고 사료할 수 있다. 즉 주거공간 위주의 제주건축의 전통적 지역성은 상업적 용도의 일반건축물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여러 건축물에서 지역성의 구현을 대지의 상황에 순응하는 태도 혹은 지역적 자연 재료의 반영 정도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표 14를 통해 보면 일반건축물 중에서도 상업용 건물보다는 공공용도의 건물(A1, D1, E3)에서 자연지형의 반영이나 자연재료의 사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향후 공공성을 지닌 건축물을 계획할 경우 지역성의 반영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표 14. 제주도 현대건축의 지역적 특성 반영 내용 - 제주시건축상 일반건축물 부분

| 구분 | | 구성 요소 | A1 | A2 | B1 | B2 | B3 | B4 | C1 | C2 | C3 | C4 | D1 | D2 | D3 | D4 | D5 | E1 | E2 | E3 | | | | |
|-----------------|-----------------------|------------------------|-----------|----|----|----|----|----|----|----|----|----|----|----|----|----|----|----|----|----|---|---|--|--|
| 건축 구성적 요소 | 배치 | 겹집구조 및 분동 지형 조건의 순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거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외부 공간 구성 요소 | 옥내 공간 | 전용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장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사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랑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옥외 공간 | 매개 공간 (퇴)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입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양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업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적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변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호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단 | | | | | | | | | | | | | | | | | | | | | |
| 의장적 요소 | 가구 요소 | 기둥 | | | | | | | | | | | | | | | | | | | | | | |
| | | 벽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마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붕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풍시설(담,풍채)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료 | 지붕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벽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부 경관 | 오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다/ 하천 바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A1 | A2 | B1 | B2 | B3 | B4 |
|---|---|---|---|---|---|
|  |  |  |  |  |  |
| C1 | C2 | C3 | C4 | D1 | D2 |
|  |  |  |  |  |  |
| D3 | D4 | D5 | E1 | E2 | E3 |
|  |  |  |  |  |  |

범례 : A-제1회, B-제3회, C-제5회, D-제7회, E-제9회 제주시건축상 일반건축물 부분 수상작

2) 1996~2005년의 제주도 현대건축 고찰 :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주거건축 부분)







(1) 1997년 제2회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1996년 시행된 제1회 제주시건축상의 수상작은 대상, 금상, 은상과 같은 상명으로 시상하였으나, 1997년 제2회 제주시건축상부터는 시상 내용을 탐라상, 한라상, 이어도상, 장려상 등으로 나누어 시상하였다. 다만 제2회 제주시건축상에서는 작품 미완성으로 탐라상 시상작품이 없었으며, 한라상에 이정식씨 주택, 이어도상에 문영종씨 주택, 장려상에 김홍복씨 주택이 선정되었다.

심사기준은 교통동선계획의 합리성, 시설배치의 적절성, 옥외공간 구성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도로 및 배치계획의 적합성과 창의성 및 독창성을 판단하는 작품의 예술성, 설계 계획의 합리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경제성 및 공공성, 도시환경 문화의 기여도 등이다.

제2회 제주시건축상 선정 작품의 건축적 특징은 표 15와 같으며, 그 내용은 한라

표 15. 1997년 제2회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 구분 | 이미지 | 도면 | 특징 |
|----------------------|---|---|---|
| 한라상 : 이정식씨 주택 |  |  | -설계 : 예원 건축사사무소 -올래, 정낭과 안·뒤개념 등 전통 건축요소를 도입 -향토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선택 -돌담개념인 트임 효과 도입 |
| 이어도상 : 문영종씨 주택 |  |  | -설계 : 김한진 건축사사무소 -조경공간, 디딤돌 등 주변환경과의 조화 노력 -외부에 대해 시야를 오픈한 정원의 green space |
| 장려상 : 김홍복씨 주택 |  |  | -설계 : 유림 건축사사무소 -붉은 벽돌 마감 -일반적으로 시공되어지는 주택의 사례 |

상인 이정식씨 주택은 올래, 정낭과 안·뒤개념 등 전통 건축요소를 도입하였으며, 향토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선택하여 건축재료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담장과 벽면은 위압감과 딱딱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의 돌담개념인 트임 효과를 도입하였고, 개방적 대문을 통한 정낭의 상징성을 표현하였다.

이어도상 수상작인 문영종씨 주택의 경우는 대문과 울타리의 조화가 돋보이며, 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왼쪽에 조정공간이 주어지고, 현관까지는 디딤돌과 계단으로 처리하여 최대한 주변과 조화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그리고 기존 도심의 담장을 탈피하여 정원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하여 주위에 녹색공간을 개방하였으며, 외부는 안정감을 주기위해 붉은 벽돌로 마감처리하고 지붕은 스페인식 오지 기와를 시공함으로써 벽체와 조화되도록 설계하였다.

장려상 수상작인 김홍복씨 주택의 경우는 새로운 형태의 탐색이었고 내부 공간에서 계단을 둔 점 등 재래식 평면 내용을 잘 처리하였다.

(2) 1999년 제4회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주거건축 부분을 시상한 1999년 제4회 제주시건축상의 수상작을 살펴보면 탐라상은 미선정되었으며 한라상에 허환씨 단독주택이, 이어도상에 양유화씨 다가구주택이 선정되었다. 3작품이 공동수상한 장려상은 우신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김영권씨 단독주택과 삼정종합 건축에서 설계한 현진호씨 단독주택, 다모아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임성신씨 단독주택이다.

선정된 작품별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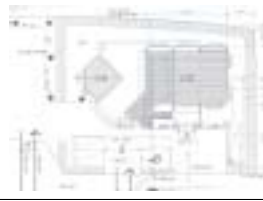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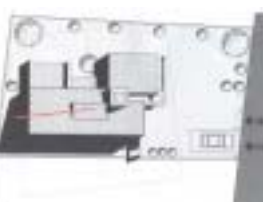
한라상 수상작품인 허환씨 단독주택은 서양식 개념의 새로운 주택양식으로서, 나무재료의 부드러운 대비가 돋보이며 대문과 울타리가 건물의 입면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주거건축이다. 1층은 부부공간과 가족간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배치하고 2층은 자녀공간을 배치하여 각각 독립된 공간구성을 하였으며, 1층은 홀을 중심으로 각 실들을 배치하였고, 2층은 가족실을 중심으로 자녀들의 방을 배치하고 1층 거실 상부를 open시켜 거실의 개방감과 2층 가족실과의 수직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였고 가족실 앞에 테라스를 두어 옥외공간과 내부공간의 자연스런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

이어도상 수상작품은 건축사사무소 김건축에서 설계한 양유화씨 다가구주택으로

서 좁은 대지를 이용한 공간활용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딱딱하기 쉬운 외벽에 공간을 도입하여 부드럽게 처리하였고, 서측 전면도로에 건축물을 설정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또한 1층은 주거전용으로, 기타층은 임대주택으로 출입구동선을 분리하는 등 기능적 평면계획을 격자 모듈형태로 표현하였다.

장려상을 받은 건축물들을 살펴보면, 우선 김영권씨 단독주택의 경우 정원, 재료의 통일성, 기능 등은 훌륭히 해결하였으나 지붕의 맨사드 처리가 무겁고 비제주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현진호씨 단독주택은 제주적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평범하고

표 16. 1999년 제4회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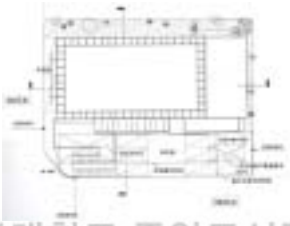






| 구분 | 이미지 | 도면 | 특징 |
|-------------------------|---|---|--|
| 한라상 : 허환씨 단독주택 |  |  | -설계 : 건축사사무소 경림 -서양식 개념의 주택양식 -옥외공간과 내부공간의 자연스런 흐름을 유도 -벽체와 나무재료가 부드러운 대비 효과를 표현 |
| 이어도상 : 양유화씨 다가구주택 |  |  | -설계 : 건축사사무소 김건축 -좁은 대지의 공간활용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 -격자 모듈의 기능적 평면 |
| 장려상 : 김영권씨 단독주택 |  |  | -설계 : 우신 건축사사무소 -본대지와 정면대지와의 경계를 정원식으로 처리 -시골스런 경관과 조화 -재료의 통일성 지향 |
| 장려상 : 현진호씨 단독주택 |  |  | -설계 : (주)삼정종합 건축 -정원, 재료의 통일성, -외부공간과 함께 전원이 주는 해방감 -단순하고 명쾌한 평면구성 |
| 장려상 : 임성신씨 단독주택 |  |  | -설계 : 다모아 건축사사무소 -주출입구(현관)을 중심으로 분절된 형태의 평면 -실별 프라이버시 확보 및 외부조망 확보 -평면 조닝별로 높이 차이 |

주위와 조화도 이루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임성신씨 단독주택은 평면처리에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외관처리는 너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단순한 느낌을 주고 있다.

(3) 2001년 제6회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2001년 제6회 제주시건축상은 예원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이도동 김성식씨 주택이 탐라상을 수상하였으며, 예림 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한 이도동 정혜숙씨 주택

표 17. 2001년 제6회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 구분 | 이미지 | 도면 | 특징 |
|----------------------------|---|---|---|
| 탐라상 : 김성식씨 주택 |  |  | -설계 : 예원 건축사사무소 -안마당, 바깥마당 제안 -단순한 건물 형태와 함께 안팎거리 공간 구축 -외관상 아름답고 안쪽의 공간 활용이 탁월함 |
| 한라상 : 이도동 정혜숙씨 주택 |  |  | -설계 : 예림 건축사사무소 -송이 타일을 사용하여 제주 고유의 이미지를 강조 -동적인 공적 마당과 사적인 정적 마당 구현 -원통매스의 작위적인 느낌 |
| 이어도상 : 김형숙씨 주택 |  |  | -설계 : 가우 건축사사무소 -제주의 전통 배치인 안팎거리 개념 도입 -각 세대별 프라이버시 제공 -부엌, 거실, 마당을 하나의 연속된 공간으로 계획 |
| 장려상 : 고순덕씨 다가구 주택 |  |  | -설계 : 지상건축 -현대적인 조형언어를 구성 -1층 상가와 주택 부분의 동선을 분리 -제주 전통 초가의 이중 마감 구조 채택 (드라이비트와 송이타일) |

이 한라상을 수상하였다. 이어도상과 장려상은 가우 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한 김형숙씨 주택과 지상건축에서 설계한 고순덕씨 다가구 주택이 각각 선정되었다.

우선 탐라상을 수상한 김성식씨 주택은 동서로 긴 대지에 지어진 건물로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건축주가 자신들만을 위한 집을 원하였으므로 안마당, 바깥마당을 두고 안마당은 거실의 바닥과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 공간적인 측면에서 외부로 시선이 연장되고 거실에서 다 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건물 형태가 단순하면서도 안밖거리 공간을 구축하고자 한 점이 돋보이며 경제적이면서 외관상 아름답고 안쪽의 공간 활용이 매우 잘 구현되어 있다. 좁은 대지를 간결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주변 공원과 단절되어있는 느낌을 받는 것은 아쉬운 측면이며 지붕의 경사 형태가 작위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주변 환경과 주택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 단점이다.

한라상을 수상한 이도동 정혜숙씨 주택은 1.5m의 경사로를 지닌 좁은 폭의 직사각형 대지에 설계되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조성된 지하에는 주차 공간을 배치하고 임대를 위한 가구를 2층에 배치하고 1층에 침해가 안되도록 계단을 이용하여 동선을 계획하였다. 또한 변화를 자제하고 박공지붕과 진입부의 곡선 벽체를 통해 주택 형태에 밝은 느낌을 부여하고 송이 타일을 사용하여 제주 고유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진입시 진입 마당을 동적인 공적 마당으로 하고 부지 조건이 가장 좋은 곳에 정적인 사적 마당을 계획하여 집안 내부의 각 실에 빛이 유입되게 하였다. 그리고 형태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원통형의 매스가 작위적인 느낌이 주고 내부 평면 구성에 있어서도 비례감각이 상업주의적인 측면이 있다.

이어도상을 수상한 김형숙씨 주택은 제주시가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한 외도지구에 예전부터 살아온 한 세대의 자녀 분가용 주거이다. 향후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구조와 동시에 자신들이 독립적인 공간을 요구하는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제주의 전통 배치인 안밖거리 개념을 도입하여 설계하였으며 자녀들을 위해 자기들만의 세계인 다락방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축주 내외, 그 자녀, 노부모님이 한 주거에 모여 살기 때문에 각 세대별 프라이버시가 제공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건축주 내외는 침실과 거실 용도의 조그만 다락방을, 자녀들은 놀이 공간으로서의 다락방을 노부모는 직접 외부로 통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구와 테라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제주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많고 여성들만의 커뮤니티 등을 감안하여 여성 별도의 출입구를 계획하였으며 부엌, 거실, 마당을 하나의 연속된 공간

으로 하고, 이와 연이어 주방 뒷 공간 및 차고까지도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장려상을 수상한 고순덕씨 다가구 주택은 지상건축이 설계하였으며, 전면에는 약 35m정도의 탐동으로 이어지는 복개 도로가 있고 좌측으로는 1층 조립식 상가, 우측으로는 3층 다가구 주택, 배면으로는 2층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기형적 형태의 대지에서 열악한 여건에 최대한의 기능 부여와 미를 가미하여 계획된 건물이다. 좁은 대지에 다가구 도시주택 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현대적인 조형언어를 구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조화되게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 1층 상가와 주택 부분의 동선을 분리하여 동선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였으며 주택 진입부로는 가벽 형식의 대문과 선적인 요소의 계단을 형성함으로써 시각적으로 교차되어지는 면과 선의 요소들로 경쾌함과 함께 열린 조망의 진입부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제주 전통 초가에서 느낄 수 있는 이중 마감 구조를 재구성하여 내피적 요소의 부분에는 드라이비트를 사용하였고 외피적 요소의 부분에는 제주 특유의 송이 타일을 사용하여 타지에서 느낄 수 없는 아담한 입면 효과를 피하였다. 기존 건축물이 늘상 보이는 정방형 형태의 다가구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미려한 입면적 형태미를 창출하였다. 또한 진입부의 개방감을 통하여 다가구 주택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이웃공존의 틀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며, 사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많이 주기 위해 많은 계획요소를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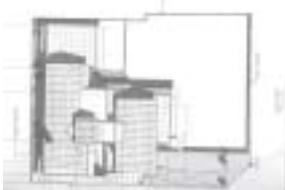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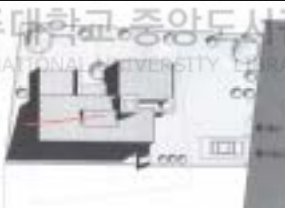
(4) 2003년 제8회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주거건축 부분을 시상한 2003년 제8회 제주시건축상의 수상작을 살펴보면 탐라상은 미선정되었으며 한라상에 건축사사무소 김건축이 설계한 이도2동 K씨 주택과 아람 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한 연동 가가주택이 공동 선정되었으며, 이어도상에는 예림 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한 K씨 주택이, 장려상에는 가우 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한 연동 S주택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작품별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18과 같다.

이도 2동 K씨 주택은 작품성은 우수하지만 제주도적이라는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너무 고급주택이라는 점이 서민주택을 권한다는 탐라상의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연동 가가주택은 디자인은 훌륭하지 못했으나 서민주택으로서 훌

표 18. 2003년 제8회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 구분 | 이미지 | 도면 | 특징 |
|------------------------|--|--|--|
| 한라상 : 이도2동 K씨 주택 |  |  | -설계 : 건축사사무소 김건축 -작품성은 우수하지만, 제주적 특성이 미비 -서민주택보다는 고급주택 지향적 성격 |
| 한라상 : 연동 가가주택 |  |  | -설계 : 아름 건축사사무소 -경사지의 우수한 활용 -서민주택 지향 -전후면의 똑같은 디자인은 지양되어야 함. |
| 이어드상 : K씨 주택 |  |  | -설계 : 예림 건축사사무소 -3세대 주택 -적절한 친환경적 접근 -지역적 재료의 사용 -서민주택보다는 고급주택 지향적 성격 |
| 장려상 : 연동 S주택 |  |  | -설계 : 가우 건축사사무소 -화려한 외관과 다양한 형태 구성 -자연친화적 담장 사용 -직관적 디자인의 느낌 |

롭게 처리했다는 점에서 선정되었으며 경사처리는 좋지만 전후면이 똑같은 점 등은 아쉬운 점이다. 그리고 예림 건축사사무소의 K씨 주택은 친환경적이면서도 3세대 주택으로서 훌륭하지만, 일반적 서민주택이라기보다는 고급주택으로 지어졌다는 단점이 있지만 친환경적인 설계 요소들은 높이 평가된다. 또한 연동 S주택은 외관이 화려하고 담장이 자연친화적으로 되어있으나, 지붕선의 처리가 너무 복잡하고 주관적 느낌대로 되어있다.

(5) 2005년 제10회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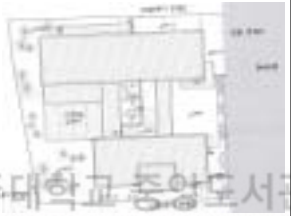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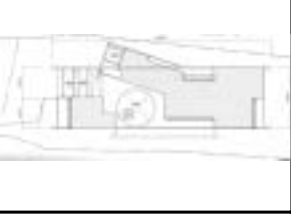
2005년 제10회 제주시건축상은 예원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외도동 L씨 주택

이 탐라상을 수상하였으며, 문예건축이 설계한 용담동 다가구 주택이 한라상을 수상하였다. 이어도상과 장려상은 가우 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한 K씨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과 예림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용강동 K씨 주택이 각각 선정되었다.

선정된 작품의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19와 같다.

탐라상으로 선정된 외도동 L씨 주택은 밝거리, 안거리의 제주도 주거 개념을 도입하고, 낮·밤으로 나누어 공간을 배분한 점, 올래 공간, 마당처리 등이 적절히 계획되었으나 다만, 외형의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조경도 미흡하다. 그리고 한라상 수상작품인 용담동 다가구 주택은 펜션으로서 한 덩어리로 처

표 19. 2005년 제10회 제주시건축상 수상작

| 구분 | 이미지 | 도면 | 특징 |
|--|---|---|--|
| 탐라상 : 외도동 L씨 주택 |  |  | -설계 : 예원 건축사사무소 -밝거리, 안거리의 제주도 주거 개념 도입 -낮·밤의 공간 분할 배분 -올래 공간, 마당처리 등을 적절히 계획 |
| 한라상 : 용담동 다가구 주택 |  |  | -설계 : 문예건축 -한덩어리로 처리하지 않고 동선을 분리 -성실한 조경 처리 -계단처리 및 시공상 미비점 |
| 이어도상 : K씨 근린생활 시설 및 다가구 주택 |  |  | -설계 : 가우 건축사사무소 -도심지 내에 상가와 다가구의 조화 -흥미로운 도심지의 조그만 마당처리 -지나치게 복잡한 외형 |
| 장려상 : 용강동 K씨 주택 |  |  | -설계 : 예림 건축사사무소 -공간 해석, 새로운 방향 제시 -실험정신의 추구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외형은 단점 |

리하지 않고 동선의 분리 처리가 흥미롭게 처리되었으며, 조경도 성실히 계획하였으나 계단의 처리, 재료 선정 등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된다.

이어도상 수상작인 가우 건축사사무소의 K씨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은 도심지 내에 상가와 다가구를 잘 조합하여 작은 공간을 잘 처리했으며 도심지의 조그만 마당처리도 흥미롭게 계획되었다. 다만, 외형이 너무 복잡한 점은 미흡한 면이라 하겠다. 또한 장려상으로 선정된 예림 건축사사무소의 용강동 K씨 주택은 공간의 해석,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다만, 이웃과의 외형이 어울리지 않고 진입구의 주차장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실험 정신은 높이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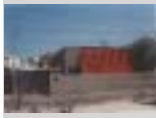
































(6) 소결

이상과 같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시상된 제주시건축상 주거건축 부분 수상작들을 통해 살펴본 제주도 현대건축의 건축적 특징 및 지역적 특성의 반영 내용을 3장에서 고찰한 건축구성적 요소와 의장적 요소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다음 표 2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주시건축상을 수상한 주거건축의 경우 일반건축물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제주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제주 건축의 지역적 특성이 주로 민가를 통해서만 규명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계획된 주택과 지역성을 반영하여 계획된 주택이 크게 대별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외부경관적 측면과 재료적 측면에만 국한되었던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주거건축은 제주 전통 건축이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공간 구성과 올래, 돌담 등이 다양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0을 통해 가장 많은 반영 사례를 보이는 특성을 고찰하면 안거리밖거리의 배치와 올래, 안뒤공간, 마당으로 조사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거건축을 계획할 경우 이런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표 20. 제주도 현대건축의 지역적 특성 반영 내용 - 제주시건축상 주거건축 부분

| 구분 | | 구성 요소 | F1 | F2 | F3 | G1 | G2 | G3 | G4 | G5 | H1 | H2 | H3 | H4 | I1 | I2 | I3 | I4 | J1 | J2 | J3 | J4 | | | |
|---|---|---|---|---|--|---|---|---|---|---|---|---|---|----|----|----|----|----|----|----|----|----|---|--|---|
| 건축 구성 적 요소 | 배치 | 겹집구조 및 분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형 조건의 순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외 부 공간 구성 요소 | 옥내 공간 | 침거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장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사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옥외 공간 | 행랑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개 공간 (퇴) | 진입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양 공간 (안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업 공간 | 노적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변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호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장적 요소 | 가구 요소 | 기둥 | | | | | | | | | | | | | | | | | | | | |
| 벽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풍시설(담, 풍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료 | 지붕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벽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부 경관 | 오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다 / 하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람 | | | | | | | | | | | | | | | | | | | | | | | |
| F1 | F2 | F3 | G1 | | G2 | | G3 | | G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5 | | H1 | | H2 | | H3 | | H4 | | I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2 | | I3 | | I4 | | J1 | | J2 | | J3 | | J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범례 : F-제2회, G-제4회, H-제6회, I-제8회, J-제10회 제주시건축상 주거건축 부분 수상작

3) 2000년대의 제주도 현대건축 : 현상설계 공모전 응모안 부분

일정규모 이상이며 또한 지역적으로 의미를 지니는 대부분의 관공사가 현상설계 공모전 위주로 진행되는 건 2000년대에 들어서 지속된 현상이다. 이런 분위기는 많은 건축사들에게 현상공모에 적극적으로 응모하도록 자극을 주었으며 그 결과 다양한 건축적 시도들이 보여지고 있다. 또한 현상공모에 출품되는 안들은 대부분 주어진 테마에 대한 합리적이며 기능적인 해석과 더불어 제주의 전통적 지역성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 이후의 현상설계 응모작을 살펴보는 건 90년대부터 이어져온 지역성에 대한 건축가들의 노력과 관심이 어떻게 이어져왔으며 혹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 사료된다.

이에 2004~5년 사이에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현상설계 공모 중에서의 연구대상 선정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시군에서 각각 공공성이 강한 공모전씩을 선정하여 당선작과 우수작, 가작 및 참여작 등 사례별로 3개 작품씩 선별하여 비교분석하였는데 제주시의 경우 벤처종합 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상설계, 서귀포시의 경우 소암 현충화 기념관 현상설계, 북제주군의 경우 북제주군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현상설계, 남제주군의 경우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예술관 신축공사 현상설계의 4개 공모전을 선정한 후, 이들 응모안에서 나타나는 제주 건축의 지역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1) 제주시 : 벤처종합 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상설계 안

표 21에서 보여지는 벤처종합 지원센터 현상설계 응모안 A는 이 공모전 당선안으로서 벤처사무 및 지원시설 직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공간계획과 함께, 접근성과 공공성을 확보한 대민시설을 포함하며, 주변 도시환경 및 질서를 유지하도록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룬 인본적(ergonomics) 건축물 제시를 목표로 설계되었다.

미래를 향한 초석, 효율적인 인프라구축, 친근한 공공성 구현을 계획의 3가지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이 안은 건물의 기능성과 상징적 조형성을 강조하였으며, 지역성의 반영은 표 21에서와 같이 지면에 많은 녹지 확보와 옥상정원을 꾸며 거기서 ‘오름정원’이라 이름 붙임으로서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정도로만 표현되어 있다.

표 21. 벤처종합 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상설계 응모안

| 구분 | 이미지 | 도면 | 특징 |
|----------------|--|--|---|
| 응모안 A (당선작) |  |  | -설계 : 제인 건축사사무소 -건물의 기능성과 상징적 조형성을 강조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 확보 (오름정원) |
| 응모안 B (우수작) |  |  | -설계 : 선 건축사사무소 -Green Site(녹색대지), Digital Fountain(디지털분수), Sunken Garden(낮은 정원) 계획의 개념 -가로녹지공간을 형성하려는 친환경적 태도 |
| 응모안 C |  |  | -설계 : 일조 건축사사무소 -Green Network 구성 -건축물의 접지면적 최소화 -올린 mass로 역동성 추구 -길, 바다, 오름, 돌담 등의 요소를 도입 |

돌과 바람을 이기며 끊임없는 생명력으로 일어난 제주민의 강인한 개척정신은 현대사회의 벤처 신화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없어선 안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될 것이라는 기본개념으로 접근한 B 응모안은 이 현상설계의 우수작 선정작이다. 이 안은 Green Site(녹색대지), Digital Fountain(디지털 분수), Sunken Garden(낮은 정원)을 계획의 개념으로 하였으며, 시청의 녹지축을 계획대지의 끝까지 연결시켜 가로녹지공간을 형성하려는 친환경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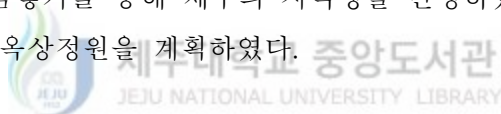
이 안의 지역성 반영 내용은 입면 및 주요 마감계획에서 보여지는데 아트리움, 커튼월, 컨퍼런스홀에 각각 제주의 바다, 하늘, 돛을 적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즉 아트리움에는 제주의 바다라는 컨셉으로 문화를 담는 맑고 포근한 어머니의 바다를 추구하였으며, 커튼월에는 제주의 하늘이라는 컨셉으로 꿈을 품고 비상하는 젊은이의 기상을 표현하였고, 컨퍼런스홀에는 제주의 돛이라는 컨셉으로 제주민의 땅과 바다를 이겨내는 강인한 개척정신을 모티브로 벤처의 모험정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다만 이러한 반영 내용은 지역성을 형태적 모티브로만 해석하는 한계

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벤처종합 지원센터 현상설계 응모안 C는 Green Network 구성, 건축물의 접지면적 최소화, 들어올려진 mass로 역동성 추구 등의 개념으로 설계된 안으로서 제주 시청과 대학로 등 제주시내 가장 활성화된 지역적 특성을 가진 계획부지 안에 사람들의 수적 수요에 비해 부족한 휴식공간을 확보하려 지면부분에 최대한 많은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한 것이 특징적인 안이다.

또한 삼성혈과 신산공원 및 인근의 쌈지공원들과의 연계를 통해 Green Network를 구성하여 건축의 공공성을 구현하려 하였고, 차량진출입과 보행동선의 분리 및 전면도로와 이면도로의 연결을 위해 대지 안에 직접통과동선을 두어 이면도로의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다.

C안의 지역성 반영 내용을 살펴보면 길, 바다, 오름, 돌담 등의 요소를 도입하여 길에 ‘약속’, ‘도입’, ‘성장’, 바다에 ‘가능성’, ‘미래’, 오름에 ‘안식’, ‘사유’, ‘지역적 정체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접근하였다. 즉 건물 전면부에 잔디오름이라 하여 오름의 이미지를 차용한 오픈스페이스를 형성하였으며, 전면도로와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보행로에는 돌담쌓기를 통해 제주의 지역성을 반영하였고,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적 건축을 위해 옥상정원을 계획하였다.



(2) 서귀포시 : 소암 현중화 기념관 신축공사 현상설계 안

서귀포시가 지역이 낳은 서예 대가로 제주에 전통 서예의 뿌리를 내리는 데 크게 기여한 소암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생각했던 서귀동 157-1번지 일대 대지면적 1474㎡에 연면적 990㎡ 안팎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소암현중관기념관을 건립, 이중섭미술관 등과 연계해 문화관광벨트화해 나갈 계획으로 시행한 현상설계 공모전이다.

당선작인 응모안 A의 건축적 특징은 소암 현중화 선생의 예술혼이 깃든 조범산 방 앞은 자연(열린마당)으로 비워두었고, 하늘에 열려있는 중정은 사색의 장이며 야외 행사가 가능한 무대로도 쓰일 수 있도록 하였다. 기단 위의 누마루는 서귀포 앞바다로 열려있는 하늘과 통하고 그 위에 떠있는 전시관은 초록빛 바다에 떠있는 섬섬, 문섬, 범섬, 한가롭게 오가는 크고 작은 배와도 통한다. 소암 선생의 안빈낙도의 고매한 인성을 느낄 수 있는 미술관은 비움에서 시작한다는 기본 전제로 계

획되었다. 이 안이 보여주고 있는 현대건축의 지역성 반영 사항은 제주석을 주재료로 함으로써 재료의 토속성, 고유성과 더불어 소암 선생의 애향정신을 담아내려고 하였으며, 목재루버를 통하여 자연환경과의 친화, 빛의 흡수를 인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조절해내려 하였다. 또한 왜곡되지 않은 투명성과 정면성을 보여주는 로이유리를 채택함으로써 조범산방을 비추는 창으로 작용하도록 하였다.

응모안 B는 기운생동, 소산쇄락, 범고창신이라는 세 가지 컨셉을 가지고 계획한 안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울동적인 조화와 생명의 움직임이라는 두 개의 개념이 결합된 것으로 서화의 절대적인 가치기준이기도 하며 소암의 가치성 즉 서예술의 품격은 ‘기운’의 문제로 남는다는 측면을 반영한 것이 기운생동이다. 또한 소산쇄락은 소암의 서체가 간략함을 위주로 하지만 서체의 아름다움은 무궁하고 이처럼 꾸밈을 일삼지 않고 자연스러운 가운데 깊은 묘취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범고창신은 서예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것을 나타내며, 옛 문화와 정신을 바탕으로 변화와 창조를 이끌어 냈던

표 22. 소암 현종화 기념관 신축공사 현상설계 안

| 구분 | 이미지 | 도면 | 특징 |
|----------------|---|---|--|
| 응모안 A (당선작) |  |  | -설계 : 아틀리에 현 건축사사무소 -열린마당과 중정 등 자연친화적 노력 견지 -제주석 등 지역 재료 사용 -바다의 이미지 반영 |
| 응모안 B (우수작) |  |  | -설계 : 한일 건축사사무소 -대지지형 조건에 대한 순응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성의 공간 구현 -지역적 재료의 사용 |
| 응모안 C |  |  | -설계 : 일조 건축사사무소 -주변환경과의 조화 강조 -수평성을 강조하여 제주의 이미지 반영 -주어진 대지조건과 조화 -건물의 면분할의 간결미 |

소암의 꾸준한 발자취는 단순한 먹의 한 빛깔과 선과 점의 영감적 조화로서 문자의 의미로 정신을 전달하는 새로운 예술성을 이룩하였다는 뜻을 말한다.

응모작 C는 소암 작품의 배경 혹은 풍경으로서의 건축을 통해 사유의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하여 시민문화예술공동체의 개방형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성의 길과 마당 역할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또한 건축적 조경(Architectural landscape)과 인근 문화예술관광벨트와의 연계를 통해 산책로를 구현하려고 하였고 대지지형 자체의 내재된 흐름을 수용하여 소암 전시 공간의 기능적 관계의 흐름을 창출하려고 하였다.

(3) 북제주군 : 북제주군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현상설계 안

북제주군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공단이 하귀 택지개발지구를 국민체육센터 건립지로 확정하고 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내 부지 1만2천여㎡에 35억원을 들여 연면적 1천600여㎡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조성 할 계획으로 시행한 현상공모로서 바닷물을 이용한 수영장, 헬스장, 건강 상담실, 다목적 강의실 등이 요구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었다.

북제주군 국민체육센터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중형 체육공간을 확충하려는 시도로서, 이러한 대중적 시도에 친환경 혹은 지역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하는 것도 건축가들의 중요한 관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북제주군 국민체육센터 응모안 A의 주요 계획개념을 살펴보면, 첫째 신생 개발 도시에 상응하는 미래지향적 랜드마크로서 작용할 것, 둘째 수평, 수직의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배분을 할 것, 셋째 내, 외부공간의 연계를 고려한 융통성있는 계획, 넷째 향후 프로그램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의 반영을 위해 한라산 자락의 오름 이미지를 수용하였으며, 환경적 디자인을 위해 아트리움형 셸터(벽, 지붕 일체형)로서 에너지 절약을 시도하였고, 자연 채광, 자연환기, 자연통풍의 환기시스템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수영장, 헬스클럽, 에어로빅실 등 주요실들을 남향배치하였으며 진입마당에 해당하는 공간을 제주의 전통 마을 어귀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제주지역의 향토적 수종을 선정하여 수목하였으며, 잔디블록, 콩자갈, 바닥용 목재판 등 친환경적인 마감재료를 선택하여 환경에너지 부하를 절감하였다.

표 23. 북제주군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현상설계 응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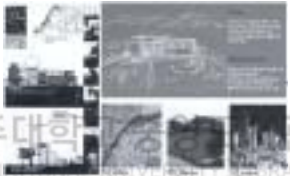
| 구분 | 이미지 | 도면 | 특징 |
|----------------|--|--|--|
| 응모안 A (당선작)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 : 예원 건축사사무소 -미래지향적 랜드마크 작용 -한라산 자락의 오름 이미지 수용 -아트리움형 웰터로서 에너지 절약 시도 -친환경적인 마감재료 선택 |
| 응모안 B (우수작)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 : 아틀리에 현 -기존 하천을 활용한 실내수영장을 계획 -향토수종의 적극적 도입 -자연친화적이며 재활용 가능한 재료 사용 |
| 응모안 C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 : 선 건축사사무소 -대지의 연속성을 수용 -지역문화의 중심적 상징성 : 랜드마크적 기능 -바다에 대한 시각적 조망 확보 |

표 23의 응모안 B는 북제주군 국민체육센터 현상공모 우수작으로서 자연조건에 순응하려는 태도를 견지한 안이다. 이 안은 하이데거의 철학을 개념으로 하여 편리를 이유로 자연 훼손에 무감해지는 것과 소통 단절을 이유로 도시화에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라는 이중 부정을 벗어나려는 사고를 보여준다. 즉 자연의 흐름을 변경하거나 혹은 도시적 패턴을 거부하지 않고, 이 양자 모두에 순응하는 건축적 대안을 제시하려 한 시도이다. 제주의 지역성을 반영한 내용을 보면, 친환경을 강조하여 기존 하천을 활용하여 실내수영장을 계획하여 자원 절약과 환경 오염 및 폐기물 감소를 추구하였고, 부지내 녹지율을 67%로 형성하여 계획 대지 전체를 일종의 공원이미지로 부각하려고 하였다. 또한 북제주군의 군목인 팽나무를 월대주변에 식재하는 등 향토수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제주의 향토적 재료와 색채를 바닥패턴에 도입하여 제주 고유의 자연친화적 패턴을 구현하였다. 또한 잔디블럭, 제주석, 목재테크 등 투수가 용이하고 자연친화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

하였다.

응모안 C는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으로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스포츠의 생활화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선진 스포츠 복지 여건조성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가정하에, 문화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균형개발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위한 생활 스포츠 센터를 계획했다. 디자인 개념은 해안선에서부터 부지를 지나 바깥오름의 파군봉까지 대지의 연속성을 수용하고,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등 스포츠 복지 문화센터로서 공적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며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표 23에서 볼 수 있는 이 계획안의 지역적 특성은 돌담의 형태적 요소를 반영하였으며, 투명한 유리 Box에 의한 투영으로 뒷공간의 녹지 랜드스케이프를 암시하며, 자연친화적 재료는 계단실 부분을 제주석으로 겨쌓기를 함으로써 수분함량에 따른 명암의 변화로서 제주의 전통적 이미지를 승계하려 하였다. 또한 오름의 형상에 의한 스카이라인 처리로서 원거리 동산과 바깥지 오름으로 이어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였고, 원거리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시각적 조망을 확보하였다.

(3)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예술관 신축공사 현상설계

저지리의 문화예술인 마을내 전시, 문화, 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할 건축으로 계획되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예술관의 건립 목적은 저지리를 위시한 제주도내의 새로운 문화생활의 장을 제공하고, 제주의 미래상을 표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또한 문화시설이 부족한 제주도민 및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며, 추후 증축이 가능한 반복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30억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천㎡ 규모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문화예술관은 지역주민과 관광객 및 개인, 가족 단위로 작품감상, 제작과정 견학, 작품구입, 실습에의 참여 등이 가능하며 문화 생활 및 생활휴식 공간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4를 통해 알 수 있는 응모안 A의 건축적 특징과 지역성 반영 내용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계획되었다. 해발 197m의 저지악 분화구와 한라산이 한 눈에 들어오는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로써 동양최대의 분재정원이 있으며, 저지악, 가마

표 24.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예술관 현상설계 응모안

| 구분 | 이미지 | 도면 | 특징 |
|----------------|---|---|--|
| 응모안 A (당선작) |  |  | -설계 : 건축사사무소 김건축 -자연 지형지세의 충실한 반영 -지역적 재료 사용 (제주석) -오름형상의 상징적 도입 |
| 응모안 B |  |  | -설계 : 선 건축사사무소 -제주도 고유의 정낭과 올래 개념 도입 -역새 마당 도입 -향토 수종의 적극적 도입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
| 응모안 C |  |  | -설계 : FUV 이안 건축사사무소 -전통마을 공동체의 길과 마당을 적용 -주변환경에 순응하는 배치 및 공간 계획 -지역적 재료 활용 |

오름, 송아오름 등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으며 제주의 신비로운 자연과 문화예술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써 여러 오름과 더불어 자연 지형 지세를 충분히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저지예술인 마을 안에 또하나의 예술인 오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성 반영 내용은 제주석을 통해 제주의 지역성을 나타내며, 오름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제주산 삼나무로 외부공간 마감을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속성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예술관 응모안 B는 ‘혼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안이다. 즉 현대의 다양화된 사회적 배경은 예술에 있어서 탈장르화를 가져왔고 건축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복합화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과거 근대에는 그 당시 새롭게 제시된 시설들이 단일 프로그램을 담는 것이었던 것에 비해 현대건축은 여러 가지 단일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개념이며, 이에 따라 단일 건물 내에서 다양한 공간의 수용을 유도하고 예술 전용공간과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의 복합(complexity)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24를 통해 알 수 있는 응모안 B의 지역성 반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제주 특유의









생활풍습인 ‘정낭’과 제주만의 커뮤니티인 ‘올래’를 수용하였다. 정낭은 세계 최초의 인간 디지털 이진 부호통신(HBCC)로 인정받았으며, 올래의 개념으로 예술관의 보행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였다. 둘째로 ‘역새마당’을 들 수 있다. 현 대지 내의 보호수목을 건축계획단계에서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건물을 연계한 환경을 조성하며, 중산간 초지의 역새와 하천의 난대림수종을 결합하여 기존 야외무대의 배경을 형성하게 하였다. 또한 향토 수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바닥 테크 등 환경친화적인 자연 재료를 사용하였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예술관 현상설계 공모안 C 계획의 기본 방향은 환경친화적 계획, 상징적인 디자인, 극적인 공간구성, 교육과 체험의 장을 형성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지리적 위치와 주변환경에 따른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주변자연환경을 전시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중요 전시물 및 기능에 부합되는 독특한 외관을 건축디자인으로 승화시키고자 했으며,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오고가는 시점에 따라 지루하지 않는 관람동선을 만들어주어 체험되어지는 관람공간을 형성하였다. 공모안 C의 지역성 반영 내용은 마을공동체의 길과 마당을 적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저지문화예술인 마을내의 다른 건물 및 주변 환경과의 관계들을 적극적으로 맺어주기 위한 설정으로 대지 전체를 마을공동체의 길과 마당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대지의 모든 방향으로 연결되는 길과 마당이 건축물의 내외부를 걸쳐 즐겁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인해 살아있는 입면을 형성하고 건물 자체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건축적 풍경을 구축한다.

(5) 소결

이상과 같이 2004~5년에 시행된 현상설계 공모전 중에서 각 시군별로 선정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현대건축의 지역적 특성 반영 내용을 3장에서 고찰한 건축구성적 요소와 의장적 요소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다음 표 2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주건축의 전통적 지역성이 주거공간 위주로 개념화되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공공 건물을 다루는 현상공모에는 상대적으로 덜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오름 및 정낭을 형상화하거나 제주석, 송이 등 지역적 재료의 적극적 활용으로 지역성 적용을 대별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간혹 민가의 공간적 특성을 일반건축물에 확대적용하려는 실험적 태도도 관찰되었다.

표 25. 제주도 현대건축의 지역적 특성 반영 내용 - 현상설계 공모전 응모안

| 구분 | 구성 요소 | K1 | K2 | K3 | L1 | L2 | L3 | M1 | M2 | M3 | N1 | N2 | N3 | | |
|---|-----------------------|---|------------|---|----|--|----|----|----|----|----|----|----|---|---|
| 건축 구성적 요소 | 배치 | 접집구조 및 분동 | | | | ○ | ○ | ○ | ○ | | | | | | |
| | | 지형 조건의 순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외부 공간 구성 요소 | 옥내 공간 | 침거 공간 | | | | | | | | | | | | |
| | | | 진용 공간 | | | | ○ | | | | | | | | |
| | | | 수장 공간 | | | | | | | | | | | | |
| | | | 취사 공간 | | | | | | | | | | | | |
| | | 행랑 공간 | | | | | | | | | | | | | |
| | | 매개 공간 (퇴) | | | | | | | | | | | | | |
| | | 옥외 공간 | 진입 공간 | | | | | | | ○ | | ○ | | | ○ |
| | | | 신양 공간 (안뒤) | | | | | | | | | | | | |
| | 작업 공간 | | | | | | | | | | | | | | |
| | 노적 공간 | | | | | | | | | | | | | | |
| | 의장적 요소 | 가구 요소 | 배변 공간 | | | | | | | | | | | | |
| | | | 방호물 | | | | | | | | | | | | |
| 기단 | | | | | | | | | | | | | | | |
| 기둥 | | | | | | | | | | | | | | | |
| 벽체 | | | | | | | | | | | | | | | |
| 처마 | | | | | | | | | | | | | | | |
| 지붕 | | | | | | | | | | | | | | | |
| 개구부 | | | | | | | | | | | | | | | |
| 재료 | | 방풍시설(담,풍채) | | ○ | | | | ○ | | | ○ | | | | |
| | | 지붕재료 | | | | | | | | | | | | | |
| 외부 경관 | | 벽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오름 | | ○ | | | | ○ | | | ○ | ○ | | ○ | |
| | | 바다 / 하천 | ○ | ○ | | | | | | | | | | | |
| | | 바람 | | | | ○ | | | | | | | | | |
| K1 | | K2 | | K3 | | L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2 | | L3 | | M1 | | M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3 | | N1 | | N2 | | N3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범례 : K-벤처종합지원센터, L-소암미술관, M-북제주군체육시설, N-저지리문화예술관 현상설계 응모안

이상과 같이 2000년대의 제주도 현대건축을 제주시건축상 수상작을 대상으로 주거건축(표 14)과 일반건축물(표 20)로 구분하여 고찰하였고, 또한 2000년 이후 시행된 현상설계 공모전 응모안(표 25)에 대한 고찰도 실시하여 배치와 내외부 공간구성요소로 개념화된 건축구성적 요소와 가구요소 및 재료, 외부경관 요소로 개념화되는 의장적 요소를 분석을 틀로 비교분석한 내용은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제주도 현대건축의 지역적 특성 반영 내용

| 구분 | 구성 요소 | 제주시 건축상 (일반건축물 부분) | | | | | 제주시 건축상 (주거건축 부분) | | | | | 현상설계 응모안 | | | | | |
|-----------------|---------------------------|-----------------------|---------------|---------------|---------------|---------------|----------------------|---------------|---------------|---------------|----------------|----------|----------|----------|----------|-----|-----|
| | | 제1회 (1996) | 제3회 (1998) | 제5회 (2000) | 제7회 (2002) | 제9회 (2004) | 제2회 (1997) | 제4회 (1999) | 제6회 (2001) | 제8회 (2003) | 제10회 (2005) | 제주 시 | 서귀 포시 | 북제 주군 | 남제 주군 | | |
| 건축 구성적 요소 | 배치 | 겹집구조 및 분동 | 1/2 | 1/4 | | 1/5 | 2/3 | | 2/5 | 4/4 | 1/4 | 1/4 | | 3/3 | 1/3 | | |
| | | 지형 조건의 순응 | | 3/4 | | 2/5 | 3/3 | 2/3 | 3/5 | 2/4 | 3/4 | 3/4 | 3/3 | 3/3 | 3/3 | 3/3 | |
| | 내외 부 공간 구성 요소 | 옥내 공간 | 침거 공간 | | | | 1/3 | | | | | 1/4 | | | | | |
| | | | 전용 공간 | | | | | 1/3 | | 2/4 | 1/4 | 1/4 | | 1/3 | | | |
| | | | 수장 공간 | | | | | | | | | | | | | | |
| | | | 취사 공간 | | | | | | | | | | | | | | |
| | | 행랑 공간 | | | | | | | | | | | | | | | |
| | | 매개 공간 (퇴) | | | | | | | | | | | | | | | |
| | | 옥외 공간 | 진입 공간 | | | | | | 1/3 | | 1/4 | | 1/4 | | | 2/3 | 1/3 |
| | | | 신양 공간 (안뒤) | | | | | | 1/3 | | 1/4 | 1/4 | 1/4 | | | | |
| | | | 작업 공간 | | | | | | | | 3/4 | 1/4 | 2/4 | | | | |
| | | | 노적 공간 | | | | | | | | | | | | | | |
| | 배변 공간 | | | | | | | | | | | | | | | | |
| | 방호물 | | | | | | | | | | | | | | | | |
| | 의장적 요소 | 가구 요소 | 기단 | | | | | | | | | | | | | | |
| 기둥 | | | | | | | | | | | | | | | | | |
| 벽체 | | | | | | | | | | | | | | | | | |
| 치마 | | | | | | | | | | | | | | | | | |
| 지붕 | | | | | | | | | | | | | | | | | |
| 개구부 | | | | | | | | | | | | | | | | | |
| 방풍시설(담,풍채) | | | | | | | | 1/3 | | | | | 1/3 | 1/3 | 1/3 | | |
| 재료 | | 지붕재료 | | | | | | | | | | | | | | | |
| | | 벽재료 | 1/2 | | | 2/5 | 1/3 | 1/3 | 2/5 | 3/4 | 1/4 | 1/4 | | 2/3 | 2/3 | 2/3 | |
| 외부 경관 | | 오름 | 1/2 | | 1/4 | 1/5 | 2/3 | | | | | | 1/3 | 1/3 | 2/3 | 2/3 | |
| | | 바다 / 하천 | | | | | 1/3 | | | | | | 1/3 | | | | |
| | | 바람 | | | | 1/5 | 1/3 | | | | | | 2/3 | 1/3 | | | |

범례 : (반영 사례 수) / (총 작품 수)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의 지역성 중에서 어떤 요소가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혹은 새로운 관심 요소로 떠오르는 지역성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왜곡을 수정하거나 보다 발전시킬 요소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배치와 관련되어서는 겹집구조 및 분동에 대한 태도와 지형 조건 및 자연친화적 태도를 견지하려는 태도가 보인다. 다만, 2000년대 이후 현상설계 응모안에서는 겹집, 안거리밖거리의 이중적 구조 등 배치와 관련된 지역성은 사라지고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며 지형 조건에 순응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둘째, 내외부 공간구성 요소를 보면 전용공간으로서 상방과 독특한 경관을 형성 하였던 놀, 내외부의 매개공간으로 기능하였던 퇴, 진입공간인 올래, 신앙공간이자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였던 안뒤, 마당 등 제주도 지역성을 반영한 다양한 공간이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일반건축물 부분에서부터 서서히 적용이 사라져 올래와 상방등의 개념만 간간히 보이다가, 2000년대 이후 현상설계 응모안에서는 올래와 정낭 등의 형태적 상징성을 보이는 요소만 제외하고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셋째, 의장적 요소는 초가의 지붕, 돌담, 풍채 등의 가구요소 및 외부 경관 요소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지붕재료로서의 새와 벽재료로서의 돌담 역시 다양한 활용이 돋보인다. 의장적 요소도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 현상설계 응모안으로 올수록 적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국부적으로 돌담의 형태적 이미지만 차용하는 수준이다. 다만 제주석, 송이, 향토수종의 나무마루 등 제주 고유의 친환경 경적 재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3)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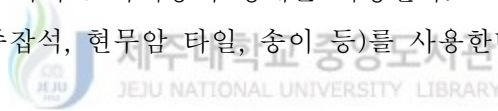
이상에서 제주도 현대건축의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오름, 초가지붕, 돌담 등 형태적 요소의 직설적 차용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상방, 안뒤, 퇴, 통시 등 제주도 고유의 내외부 공간구성요소의 활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형에 순응하는 자세와 자연 재료의 다양한 활용으로 지역성을 반영하였다는 설명을 하고 있으나, 제주의 지역성을 구현하는 최적의 방법으로는 사료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지역성의 표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1) 평면적 특성

- ① 제주도 전통주거와의 연계성에 의한 평면을 지향한다.
- ② 마루를 중심으로 남향 배치한다.
- ③ 마루 혹은 거실을 개방적으로 한다.
- ④ 주방과 화장실의 위치가 특수하다. 화장실을 격리시키거나 외부에 배치, 주방은 거실 후면의 좌우측에 둘 수 있으나 거실과 같이 전면에 평행배치하지는 않는다.
- ⑤ 핵가족 중심의 평면단위 구성을 선호한다.

(2) 입면적 특성

- ① 바람 등의 자연환경에 의하여 층고가 낮다.
- ② 퇴개념을 적용한 돌출된 캐노피를 활용한다.
- ③ 여름철에 대비하여 북쪽창을 크게 낸다.
- ④ 지붕은 전통주거의 초가지붕의 형태를 지향한다.
- ⑤ 향토자재(제주잡석, 현무암 타일, 송이 등)를 사용한다.



3. 향후 제주도 현대건축에의 적용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현대건축에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들을 제안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제안하게 될 현대건축에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건축패턴 어휘의 연구에서 계획구성 요소들을 빌려와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본 개념과 원칙을 세우고 그 개념을 전제로 구성되었다.

1) 배치

(1) 주거 공간의 배치

① 공간 계획 요소

- 건물의 정면, 주현관, 동선영역, 주건물, 대지의 정비, 좌향, 건물의 채광

② 기본 계획개념

- 분동 배치(복합 건물) : 건물의 배치는 단독 건물보다는 여러 기능을 지닌 건물로 분리하여 배치한다. 그래서 집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바람을 최소화하고 외부공간에서의 작업도 용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요감을 형성한다.
- 외부의 중심공간을 중심으로 구심적 배치를 한다.

2) 내외부 공간구성

(1) 옥내공간

① 공간계획요소

- 공동영역(대청, 마루), 내부통로, 랑하(廊下), 방, 기타침실, 실내채광, 동측취침, 수장공간

② 기본 계획개념

- 켜의 형성 : 적절한 켜를 형성함으로써 바람이 주실로 직접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되, 여름에는 통풍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므로 폐쇄적 개념의 켜가 아닌 개방적, 반개방적 개념의 켜를 형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지붕이 있거나, 반개(半開)의 벽체를 갖춘 공간, 혹은 테라스 정도의 반외부 공간을 만든다.

(2) 매개공간

① 공간계획요소

- 현관, 테라스

② 기본 계획개념

- 여러 겹의 공간을 형성함에 있어서 전통민가의 '퇴'라는 공간은 옥내와 옥외 공간 사이에 위치하면서 옥내공간을 둘러싸면서 하나의 공간 층을 형성한다.
- 이러한 매개공간을 잘 활용하여 개방적이면서도 겨울에는 적당히 폐쇄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매개공간의 폭은 너무 넓지 않게 하여 과도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옥외공간

① 공간계획요소

- 주현관, 옥외실, 정원, 입구의 전환, 공지의 계층화, 중정(마당), 보행로

② 구성방식

- 마당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심적으로 배치한다.
- 진입공간-마당-안뒤로 이어지는 공간의 구성을 활용한다.
- 단조로운 골목의 의미를 가진 공간이 아니므로 다양한 공간전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진입부에서는 건물 정면이 보이지 않도록 너무 큰 공간이 되지 않게한다.

3) 의장요소

(1) 기단

① 공간계획요소

- 낮은 기단

② 기본 계획개념

- 전통민가의 기단이 낮다고 해서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높아 보이는 기단은 위화감을 줄 수 있고 서구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 기단을 평면적으로 그리고 입면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평면적으로 해석하여 공간 계획을 할 때, 기단은 매개공간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료

① 구성요소

- 돌(현무암), 송이

② 기본 계획개념

- 돌, 나무, 기와 등의 절제된 사용으로 시각적 질서를 통일과 조화라는 가장 근본적인 디자인 원칙을 지키며 지면으로부터 지붕쪽으로 마감의 계층성을 두어서 정연한 재료사용의 질서성을 유지한다.

(3) 지붕/천장

① 계획요소

- 보호지붕, 천장고의 변화

② 계획개념

- 깊은 처마와 편평한 지붕면의 음양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효과적인 외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4) 벽

① 계획요소

- 반개(半開)의 벽체, 후벽(thick walls)

② 기본 계획개념

- 폐쇄적인 형태와 개방적인 형태와의 균형을 이루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주도의 기후특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막벽을 이용하여 기본 구체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한다.
- 돌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제주특유의 경관적 특성을 살리는 이중적 벽을 구성한다.

(5) 개구부

① 계획요소

- 실내창, 양면채광, 건물의 단부, 해받이 장소, 북측면, 가로측 개구부, 외랑, 발코니, 가로에 면한 창, 대지에의 연결, 측문

② 기본 계획개념

-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계획이 되도록 가변적 요소를 활용한다.
- 배치에 따른 개구부 위치를 적절히 하여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하며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한다.
- 바람이 많은 제주도의 기후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절에 따른 효과적인 구성을 하도록 한다.
- 여름에는 최대한 바람을 끌어들이면서 태풍을 막을 수 있는 개방적이면서도 폐쇄적인 이중의 효과를 기대한다.

(6) 답

① 계획요소

- 정원담, fin wall

② 기본 계획개념

- 바람의 영향을 최소로 하는 적절한 담의 배치
- 제주도 특유의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재료 사용(돌)
- 돌(현무암)이라는 재료를 적절히 활용한다. 외관상으로 견고한 벽보다는 틈새를 이용하는 벽의 디자인
- 방풍시설로는 주로 돌담과 방풍림을 이용한다.

이러한 요소들 외에, 제주도 지역성을 표현할 수 있는 좀더 다양한 건축언어, 계획 요소들을 제안함에 있어, 전통민가의 고찰에서 얻어진 개념과 요소들을 참고하여 나름대로 기본 계획개념을 세우고 기존의 건축적 패턴 어휘들의 연구에서 그 요소들을 차용하였다. 이들을 종합하여 앞으로의 제주도 현대건축에 지역성을 적용할 때에 가능한 계획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표 27. 제주도 현대건축에 적용 가능한 지역성 및 발전 방향


| 구분 | 계획요소 / 기본계획개념 | 구성요소 | 계획내용 |
|----|---|--------|---|
| 배치 | - 분동 (복합건물) | 건물의 정면 | - 보행로에 접해서 건물을 세우도록 한다. - 건물의 정면을 가로에 맞추어 약간 가지런하지 않은 각도로 해서 나란히 세워간다. |
| | 건물의 배치는 단독 건물보다는 여러 기능을 지닌 건물로 분리하여 배치한다. 그래서 집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바람을 최소화하고 외부공간에서의 작업도 용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요감을 형성한다. | 주현관 | - 위치, 형태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 건물의 정면현관은 주요 접근로에서 비교적 쉽게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 식별하기 쉬운 대담한 형태로 구성한다. |
| | | 동선영역 | - 대규모 건물, 작은 건물의 집합체에서 단계적으로 연속적인 공간을 통과, 일정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 계획한다. - 각 영역에는 입구 표시를 해서 통과할 때마다 더 작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 - 행선지에 쉽게 갈 수 있어야 한다. |

| 구분 | 계획요소 / 기본계획개념 | 구성요소 | 계획내용 |
|-------|--|----------------|---|
| 배치 | | 주건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이 되는 건물을 중앙에 배치, 주요건물을 형성한다. - 주요 건물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 | | 대지의 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건축물은 현재 가장 불건전한 지역에 세우도록 하여 만족스러운 옥외공간을 형성한다. |
| | | 남향의 옥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은 항상 옥외공간의 북측에 배치, 그 공간이 항상 남향에 위치하도록 한다. - 건물과 양지바른 옥외 사이에 넓은 그늘의 지대를 남기지 않도록 한다. |
| | | 건물의 채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자연적인 사회생활집단에 거의 대응할 수 있도록 건물을 몇 개의 동으로 분할해 간다. - 각 동은 될 수 있는대로 좁고 길게(짧은 쪽을 7.5m 이하로) 한다. |
| 옥내 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켜의 형성 - 대청 - 안방 - 기타침실 - 부엌 (퇴) | 공동 영역 (대청, 마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회집단마다 유일한 공동구역을 설치한다. - 집단이 점유하는 공간전체의 중심위치에 공동영역을 배치, 건물의 출입에 쓰이는 통로가 공동구역에 접하도록 한다. |
| | 구성방식 켜의 형성 | 내부통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한 낭하와 통로를 이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공적인 방과 공동실을 이동하거나 집합하는 데에 이용한다. 즉 공동실을 연쇄나 순환형으로 배치, 방에서 다닐 수 있게 한다. - 사실(私室)에서 직접 공적인 방으로 나갈 수 있게 한다. - 방에서 방으로의 옥내이동에는 여유를 주어서 큰 창문을 바라보면서 집을 돌아 다닐 수 있게 넓고 여유있는 순환통로를 설치하도록 한다. |
| | 적절한 켜를 형성함으로써 바람이 주실로 직접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되, 여름에는 통풍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므로 폐쇄적 개념의 켜가 아닌 개방적, 반개방적 개념의 켜를 형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지붕이 있거나, 반개(半開)의 벽체를 갖춘 공간, 혹은 테라스 정도의 반외부 공간을 만든다. | 랑하 (廊下)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짧게하고, 방과 같은 구조로 한다. - 형태는 여유가 있게 하고, 항상 충분한 빛이 들어오게 한다. - 벽면 전체에 걸쳐 창이 있어야 훌륭한 랑하와 통로가 된다. |
| | | 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각 구성원, 성인에게는 자신만의 방을 부여하도록 한다. - 최소규모는 책상, 책장과 커튼이 있는 알코브정도로 한다. - 최대의 규모는 침대의 최소주택, 노인의 소주택 정도로 한다. - 가장 끝부분에 배치한다. (공용실로부터 되도록 멀리) |

| 구분 | 계획요소 / 기본계획개념 | 구성요소 | 계획내용 |
|-------|---|------------------------------|--|
| 옥내 공간 | | 어린이의 영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의 작은 영역을 배치, 주택의 인쪽에 격리시켜 군상배치로부터 유희 공간이 가로로 향해 연속적으로 형성되게 한다. - 가족 공용실에 접해 있고 공역의 한쪽을 지나서 가로에 이르게 한다. - 전용문 또는 현관실을 지나서 옥외실이 있도록 계획한다. - 가로와 연결되어 있으나 지붕이 있고 비가 올 때도 놀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옥외공간을 마련한다. |
| | | 실내 채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방은 남쪽을 따라 배치, 동서방향으로 길게 건물을 배치하여 동남이나 서남 햇볕이 들어오도록 한다. |
| | | 동측 취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을 자는 곳은 동향으로 면하게 한다. |
| | | 대형 창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장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장소를 옥내에 마련하도록 한다. 굳이 좋은 위치를 차지할 필요는 없다. |
| 매개 공간 | | 현관 (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구가 명시되고 옥외공간과 옥외공간을 포함하여 옥내외 경계에 걸치고 있는 빛이 가득 찬 방을 설치한다. - 안쪽은 홀이나 객실과 연결되도록 한다. |
| | | 테라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실을 테라스나 현관을 향해서 개방시킨다. - 낮은 벽으로 보호한다. |
| 옥외 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당 (작업공간) - 올래 - 안뒤 - 채진 (퇴) | 주현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접근로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식별하기 쉬운 대담한 형태로 구성한다. |
| | | 옥외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둥, 격자 울타리, 움직이는 캔버스지붕, 앉을 수 있는 경계벽, 막, 생울타리, 건물 자체의 외벽 등을 이용하도록 한다. |
| | 구성방식 구심적 공간 배치 (마당을 중심으로) 진입공간-마당-안뒤로 이어지는 공간 구성 활용 | 정원 (마당+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의 전면, 배면에는 정원을 설치하지 않는다. - 가로로부터 반쯤 가려지고 반은 노출된 곳, 주택 측면의 위치에 마련한다. |
| | | 입구의 전환 (올래) - 올래 : 왜곡된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와 주현관 사이에 전환공간을 통하여 가로와 입구를 연결하는 통로를 두도록 한다. - 위요의 변화를 이루는 대문, 조망의 변화에 의해서 전환공간을 설치한다. (빛, 소리, 방향 및 노면의 변화를 가지고 만듦) - 방풍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휘어짐이 필요하다. |

| 구분 | 계획요소 / 기본계획개념 | 구성요소 | 계획내용 |
|------|---|---------|---|
| 옥외공간 | 진입부에서는 건물 정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너무 큰 공간이 되지 않게 한다. | 중정 (마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정에서 보다 넓은 옥외공간을 내다볼 수 있게 배치한다. - 주위 건물에는 적어도 2, 3개의 문을 설치하여 자연스럽게 있는 통로가 중정을 지나게 한다. - 중정 한쪽 변의 문 옆에 옥내와 중정 양쪽을 연결하는 지붕 덮인 배란다나 현관을 설치한다. |
| | | 공지의 계층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공간 형태의 구성은 그 공간의 자연적인 배면을 형성하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 적어도 그 공간의 한 개구부가 보다 큰 공간을 통할 수 있게 배치하여 배면을 등지고 자연스런 위치를 잡게 되어 보다 큰 원경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
| | | 보행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보행로의 중간부를 부풀게 해서 넓히고 그 단부는 좁게 한다. - 보행로는 위요된 공간이 형성되며, 단지 통과하는 곳만이 아니고 머무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구심적인 가로) |
| | | 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정원, 공유지의 일부를 채소밭으로 마련한다. - 반드시 햇빛을 받도록 한다. - 이용하는 모든 세대에 대해서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 울타리를 둘러싸고 측면에 작업도구를 넣어 두는 소규모 창고를 설치한다. |
| 기단 | - 낮은 기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면의 구성에서 선택될 수 있는 요소이다. - 면적인 요소의 해석이 때에 따라서 선적으로, 선+면적, 면+면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선적인 해석은 동일 높이의 건물에서 시각적으로 낮게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전통적인 인식체계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 |
| | 입면, 평면적으로 다양한 해석 | | |
| 재료 | 돌, 나무, 기와 등의 절제된 사용으로 시각적 질서를 통일과 조화라는 가장 근본적인 디자인 원칙을 지키며, 지면으로부터 지붕쪽으로 마감의 계층성을 두어서 정연한 재료사용의 질서성을 보인다. | 돌 (현무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 타일, 외장재 등등..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 | | 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성이 잘 드러나는 풍토건축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유용하다. |
| | | 송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돌 등으로 만들어져 외장재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단편적인 쓰임새가 많다. 새로운 재료의 개발과 함께 기존 재료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적인 사용보다는 다른 재료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쓰일 수 있도록 한다. |

| 구분 | 계획요소 / 기본계획개념 | 구성요소 | 계획내용 |
|-----------|--------------------------------------|---|--|
| 지붕/ 천장 | 깊은 처마와 편평한 지붕면의 음양 조화 | 보호 지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은 경사지거나 볼트형으로 하며 지붕 전체가 보이게 한다. - 일단 서게 되는 입구와 같은 장소에서는 처마 높이를 1.8m에서 2.0m 까지 낮추도록 한다. - 각 건물의 최상층은 단지 지붕을 덮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 지붕에 감싸여지고 있는 것 같이 건축한다. |
| | | 천장고의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전체에 걸쳐서 서로 개방된 방들 사이에는 연속적으로 천장 높이에 변화를 줘서 다른 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상대적인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 공격적인 방,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방의 천장은 높게(3.0~3.6m), 사람이 적게 모이는 방은 낮게(2.1~2.7m), 두 사람 이하의 방과 반침의 경우는 매우 낮게(1.8~2.1m) 계획한다. |
| 벽 | 폐쇄적인 형태와 개방적인 형태와의 균형 |  반개(半開)의 벽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 트인 개방공간과 독방 같은 폐쇄공간 사이에 합당한 균형을 위해서 실내공간의 벽과 개구부 및 창문을 조정한다. - 각 공간을 방으로 여긴다든가 사방으로 모든 공간을 서로 연결시키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한다. - 완전히 둘러싸인 방도 완전히 연속된 공간도 존재하지는 않도록 한다. - 기둥, 반개된 벽, 현관, 실내장, 미닫이 문, 낮은 창대, 여닫이 문, 앉을 수 있는 벽을 조합해서 활용하여 합당한 균형을 얻는다. |
| | 외부에 대해서는 폐쇄적이거나 내부적으로 개방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 후벽 (thick wall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벽체는 두꺼우며 실질적인 용적 즉 실제로 사용가능한 공간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 벽체는 두께가 전혀 없는 부재가 되어서는 안되며, 두꺼운 벽체를 어느 곳에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
| | | 벽체와 지붕의 연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체의 볼륨감은 상대적으로 둔중하게 느낄 수 있으나 벽체와 지붕과의 분리는 지붕의 상징성을 강조한다. - 처마의 깊이와 처마선에서 벽체 상단부 사이의 거리와 이 부분의 재료와 질감이 중요한 관점이 된다. 돌출된 벽체 처마밑 심벽은 회벽(灰壁)으로 대비시켜 지붕의 양적 성질이 독립되어 강조한다. |

| 구분 | 계획요소 / 기본계획개념 | 구성요소 | 계획내용 |
|---------|--|--|--|
| 개구부 | 가변적 배치에 따른 개구부 위치 | 실내창 | - 활동이 너무 적어 활기가 없는 듯한 방이나 방안이 의외로 어두운 방들 사이에는 전면에 고정창 유리를 설치한다. |
| | | 양면채광 | - 각 방은 적어도 두 면이 옥외공간에서 접하도록 위치 - 두 방향 이상에서부터 자연채광이 들어올 수 있게 외벽에 창을 설치 |
| | | 건물의 단부 | - 선 또는 두께가 없는 경계면이 아닌 공간적인 지역, 장소, 물체로서 분명히 다룬다. - 凹형태를 만들어 사람을 멈추어 서게 할 수 있다. - 외주부를 따라 깊이 있는 지붕이 덮인 장소를 마련한다. |
| | | 해받이 장소 | - 남향의 중정, 정원 또는 안마당에서 가장 양지 바른 건물과 옥외와의 접점을 찾아내어, 해받이 장소의 접점으로 발전시킨다. - 해받이 장소는 바람막이가 되게 배치하도록 한다. |
| | | 북측면 | - 건물의 북측면은 가파르지 않게 지상으로 경사진 캐스캐이드형으로 해서, 북측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난 햇빛이 건물측면의 지면에 즉각 비치게 한다. |
| | |  가로측 개구부 | - 가로에의 노출을 기대하는 어느 공에서도 이를 완전히 개방, 내부를 공개할 수 있는 벽체를 설치한다. - 보행로의 반대측에도 공간활동의 어느 부분을 포함토록 해서, 실제로 통로에 펼쳐지게 할 것이며 사람들이 통로를 걸어갈 때 그 활동을 통해서 가게 한다. - 이런 개구부를 설치하는 방법에는 천장 부분에 레일을 달아서 간단한 합판으로 여단이 셔터를 만들 수 있으며, 잡아 당겨서 완전히 열거나 밤이 되면 다시 끌어내려서 잠글 수 있다. |
| | | 외랑 | - 각 층마다 건물의 단부에 현과, 주랑, 아케이드, 발코니, 벽감, 옥외의자, 차양 및 격자 지붕의 방을 설치한다. - 공공 공간이나 가로에 면한 곳에서는 실내로부터 직접 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 연결한다. |
| | | 발코니 | - 발코니, 현관, 주랑, 테라스를 세울 때는 최소량(1.8m)의 깊이를 잡아야 한다. - 건물 안으로 얼마만큼 끌어들임으로써 밖으로 돌출되지 않고 건물에서 별도로 분리되지 않게 하면서 부분적으로 둘러싸이게 한다. |
| 가로 면한 창 | - 복잡한 가로에 면한 건물에는 앉아서 가로를 내다보는 의자를 창가에 설치하는데, 침실이나 자주 통과하는 복도 또는 계단 어딘가에 배치한다. - 지상층에서는 높게 해서 독자성을 유지토록 한다. | | |

| 구분 | 계획요소 / 기본계획개념 | 구성요소 | 계획내용 |
|-----|---|----------|--|
| 개구부 | | 대지에의 연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단부의 주변에는 일련의 통로, 테라스, 계단을 설치, 건물과 주위의 대지를 연결한다. - 의도적으로 건물과 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처리하여 어디서 건물이 끝나고 대지가 시작되는지 불명확하게 처리 |
| | | 측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 가운데 문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주 큰 방, 현관실은 제외) - 대부분의 방과 작은 방에서는 한 방 모퉁이 가까이에 문을 설치한다. - 문이 두 개가 될 경우, 각각 방의 한쪽 편 벽에 둠 |
| 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의 영향을 최소로 하는 적절한 담의 배치 - 제주도 특유의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재료 사용 (돌) | 정원 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러싸임을 형성, 통과교통의 시야와 소음으로부터 조용한 정원 내부를 보호한다. - 대규모 정원이나 공원이라면 나지막한 관목, 나무, 경사지 같은 것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둘러싸임이 바람직하다. - 정원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둘러싸임을 견고하고 분명히 해야한다. - 매우 작은 정원에서는 건물이나 벽체를 이용해서 둘러싸도록 한다. (생 울타리, 철책만으로는 불충분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현무암)이라는 재료를 적절히 활용한다. - 외관상으로 견고한 벽보다는 틈새를 이용하는 벽의 디자인 | fin wal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n wall을 두면 한 면에서의 공기 압력 분포를 변화시켜 개구부를 통한 실내 환기 효과를 크게 증진시킨다. - 각 개구부에는 하나의 fin wall이 설치되어야 하고, 개구부들의 같은 쪽에 fin wall을 두면 실내 환기 효과가 떨어진다. - fin wall은 바람 방향에 대해 45° 각도로 설치될 때 실내 환기 효과가 좋고 바람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되면 실내 환기 효과가 거의 없다. - 벽에서 개구부의 위치는 실내로 도입되는 공기량 뿐만 아니라 실내로 도입되는 바람의 초기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 벽체 중심에서 벗어난 곳에 개구부를 두면 실내로 도입되는 바람의 방향이 빠져들어서 실 중앙으로 바람이 가지 않게 된다. (벽체 중앙 근처의 공기 압력이 모서리에서보다 더 높기 때문) |

V. 결 론

급속히 진행되는 세계화, 다변화의 시대에서 우리 것, 우리문화에 대한 재해석과 적용은 다양한 부문에서 시도되어져 왔고, 건축에서의 적용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세계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전통 문화 및 지역적 정서가 녹아있는 디자인 수법들을 발견하여 개발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건축 디자인의 어휘로 폭넓게 사용되어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제주도 전통건축의 특징들을 건축구성적 요소와 의장적 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또한 그 현대적 적용 사례를 제주시 건축상 수상작과 공공 건축물 신축공사 현상설계안에서 분석하였다.

앞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주도 전통민가에서 반영하고 있는 건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마당을 중심으로 별동 배치를 하여 전체적으로 폐쇄적 형태를 지닌다.
- 둘째, 좌향은 남향배치를 선호하나 북사면에서는 동향이나 서향이 유리하다.
- 셋째, 상방마루라는 공간요소는 각 공간을 연결해주는 행랑공간의 기능과 여름에 침거실로 전용되는 기능을 지닌다. 겨울에는 옥내 작업공간으로도 활용되며 여름에는 통풍 효과를 높여주어 제주도 기후의 특성에 적절한 공간 구성을 가능케 한다.
- 넷째, 겹집구조와 다동분립형 배치의 폐쇄성과 함께 높은 개구율과 상방마루 공간의 개방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 다섯째, 제주도 전통민가에서 전후의 되는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에 대한 구조적인 역할과 함께 비바람의 여과, 작업공간 및 수납공간으로서의 기능 등 작지만 많은 효과를 지닌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여섯째, 전체적인 외관은 지붕을 엮어맨 새끼줄과 낮으막한 돛형태의 지붕모양, 전체적으로 낮은 높이의 입면구성, 그리고 건물을 둘러싼 돌담의 폐쇄적 형태와 돌로 된 벽체의 특징적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일곱째, 실의 기능분화가 자유스럽고 분산적인 경향이 강하다.
- 여덟째, 올래(도입부)-올래목(전곡부)-마당(발전부)-안뒤(종결부) 리듬의 독특한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다.

위의 내용에 따라 제주도 전통건축의 지역적 특성이 오늘의 현대건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분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치와 관련되어서는 곽집구조 및 분동에 대한 태도와 지형 조건 및 자연친화적 태도를 견지하려는 태도가 보인다. 다만, 2000년대 이후 현상설계 응모안에서는 곽집, 안거리밖거리의 이중적 구조 등 배치와 관련된 지역성은 사라지고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며 지형 조건에 순응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둘째, 내외부 공간구성 요소를 보면 전용공간으로서 상방과 독특한 경관을 형성 하였던 놀, 내외부의 매개공간으로 기능하였던 퇴, 진입공간인 올래, 신앙공간이자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였던 안뒤, 마당 등 제주도 지역성을 반영한 다양한 공간이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일반건축물 부분에서부터 서서히 적용이 사라져 올래와 상방등의 개념만 간간히 보이다가, 2000년대 이후 현상설계 응모안에서는 올래와 정낭 등의 형태적 상징성을 보이는 요소만 제외하고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셋째, 의장적 요소는 초가의 지붕, 돌담, 풍채 등의 가구요소 및 외부 경관 요소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지붕재료로서의 새와 벽재료로서의 돌담 역시 다양한 활용이 돋보인다. 의장적 요소도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 현상설계 응모안으로 올수록 적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국부적으로 돌담의 형태적 이미지만 차용하는 수준이다. 다만 제주석, 송이, 향토수종의 나무마루 등 제주 고유의 친환경 경적 재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오름, 초가지붕, 돌담 등 형태적 요소의 직설적 차용이 가장 많이 보였으며 상방, 안뒤, 퇴, 통시 등 제주도 고유의 내외부 공간구성요소의 활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설계의 규모가 주택에서 미술관, 박물관, 문화예술관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로 변화하였다는 조건의 한계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지역성을 도외시해도 가능한 관점은 아니다. 또한 지형에 순응하는 자세와 자연 재료의 다양한 활용으로 지역성을 반영하였다는 측면을 견지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성을 반영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형태적 차용이 용이한 오름, 초가지붕, 정낭 등만이 아닌 제주인의 삶과 가치관이 잘 반영되어 있는 내외부 공간구성 요소인 상방, 안뒤, 올래, 통시, 풍채 등의 현대적 적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역성을 반영한 요소는 적절한 선정과 계획을 바탕으로 그 요소의 적극적 활용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김광연,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88

주남철, 한국의 목조건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주남철, 한국의 전통민가, 아르케, 1999

연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제주건축 제2집-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제주도건축사회, 1992

'99 건축문화의 해 제주지역 추진위원회, 제주의 건축, 상지문화, 1999

김홍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1992



2. 외국문헌

Nisijawa T., 이범재, 김병윤 역, 외부환경디자인, 기문당, 1984

Amos Rapoport,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 1985

Christopher Alexander, 건축·도시형태론(a pattern language), 태림문화사, 1988

K. Frampton, 정열철, 윤재희 저, 현대건축사, 세진사, 1999

Yoshinobu Ashihara, 김정동 역, 건축의 외부공간, 기문당, 1984

Yoshinobu Ashihara, 강건희 역, 외부공간의 미학, 기문당, 1992

Yoshinobu Ashihara, 정무웅 역, 속 외부공간의 미학, 기문당, 1993

3. 논문

- 송성대, 한국 도서지방 초옥민가의 지역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박은영,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석윤, 제주도 주택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김석윤,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이상정, 한국남부해안지역의 지역성에 적응하는 주거건축의 적정계획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양건, 제주지역 현대 단독 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이선영, 현대건축의 지역성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성 및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김명복, 강원도 남부와 경북 북부지역의 겹집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구재오, 지역기후에 따른 한국 민가의 평면유형 분류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김미령, 제주도의 기후환경이 민가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허정아, 현대건축의 지역성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동수, 한국 현대건축에 있어서 지역성 표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신화경, 제주도 민가의 형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 9('96. 12)

조성기, 한국민가에 있어서 북부형과 제주도형의 비교, 대한건축학회지 27권 112호 ('83. 6)

4. 정기간행물

지역건축탐방14 - 제주(상), 건축사, 9910

제주도, 제주의 민속 4(의, 식, 주 생활), 1996

남제주군,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1994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육성기본계획, 1980

제주도, 제주건축의 향토성 개념정립과 보급확대방안 연구, 1987

지역건축탐방14 - 제주(하), 건축사, 9911

